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안전보건

2012 DECEMBER VOL.280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2

Special Report
안전하고 건강한
송년회 만들기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HAPPY FEELING

행복 느낌

아테네의 유명한 시인인 에우폴리스에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물었다.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지요?”

그러자 에우폴리스가 대답했다.

“한 잔 마시면 의사가 필요 없고,

두 잔 마시면 싱글벙글, 석 잔 마시면 잠이 오는데,

여기에서 끝내는 게 최상책이야.

넉 잔부터는 술이 술을 부르게 되어

다섯 잔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여섯 잔이면 무례해지고,

일곱 잔 들어가면 권투선수가 되고,

여덟 잔이면 골치가 아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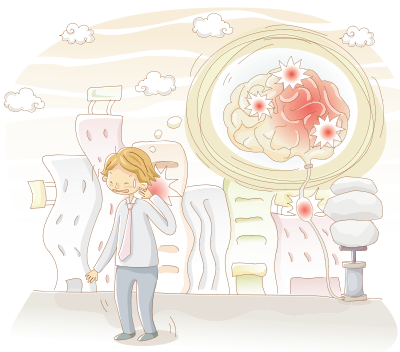




스페셜 리포트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작업장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 가스의 위험성과 독성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스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한 사용방법 및 예방대책을 잘 숙지하여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건강 365

경비원, 미화원분들이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위험성과 예방법이 잘 정리되어 있어 현장 교육에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자신 있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경비원, 미화원 직종과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실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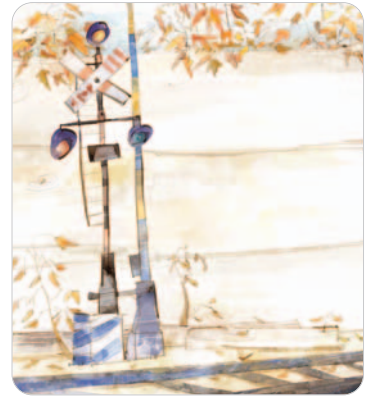
어수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VOICE OF 독자의 소리 READER

〈안전보건〉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안전보건〉을 읽으신 후 느낀 소감을 독자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About 2012.11 -



테마스토리

안전보건이야말로 원칙이 중요하기에 '원칙이 가져오는 변화와 성공' 편을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사고는 무심코 좀 더 편하고자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에 임하다가 발생하는 일이 태반입니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으로 '원칙'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각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재욱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정전기 사고예방대책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재직 중인데 '정전기 사고예방대책' 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전기 방지를 위한 접지방법이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김재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Contents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안전보건 2012년 12월호 제24권 제12호(통권 280호)

발행처 안전보건공단

발행인 백헌기

기획편집 교육미디어실

편집위원 박동기, 이지현, 박남규, 김일수, 김종윤, 김중호,
이주영, 유호진, 박태순, 김동열, 윤권일, 김익주

담당 김연지(agape0212@kosha.net) 032-5100-682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구산동 34-4)

홈페이지 www.kosha.or.kr

제작 및 편집디자인 대통기획 02-516-3614

사진 e-cube 스튜디오

인쇄 두산동아(주) 안산공장 031-489-7842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들은 각 필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공단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월간(안전보건)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위시 매거진'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December

독자의 소리	03
Issue & Focus	06
Special Report	08
안전하고 건강한 송년회 만들기	
- 송년회의 역사와 의미	
- 술이 불러오는 위험 신호	
- 송년회 때 생기는 사건 사고들	
- 건강한 송년회를 도와주는 똑똑한 아이템	

Passion 열정의 현장

KOSHA 파트너	한국소비자원 정대표 원장	20
산재예방 달인	(주)포스코엠텍 광양 포장사업부문 안전팀 김일곤 안전담당자	24
화제의 현장	'안전점검의 날 200회' 기념행사	28
무재해 실천일지	GS건설(주) 대전 센트럴 자이 아파트 현장	30
화제의 명예감독관	인천교통공사 김영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4
만화로 보는 안전보건	공정 안전 ㉔	38

Happiness 행복 발전소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인증 사업장	한국GM 대전서비스센터	44
생활안전 플러스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전은 '트리플 보기'	48
건강 365	귀족병 '통풍' 주의보	50
함께 배우는 스트레칭	실내에서 하는 스트레칭	52
Theme Keyword	삶은 '기록' 한 만큼 기억된다	54
Theme Touch	'기록' 으로 보는 우리나라의 역사	56
Theme Plus	기록에 대한 다양한 '기록'	58

Energy 안전보건 에너지

건설업 중대재해사례	후진 중인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	62
제조업 중대재해사례	트랙터 연료통 수리 중 화재 · 폭발로 인해 사망	64
서비스업 중대재해사례	난방기 모터 샤프트에 목도리가 감기며 질식사 사망	66
안전보건 Focus I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재사용 가설기자재 등록	68
안전보건 Focus II	'위험성평가 인정' 2013년부터 본격 시행	72
지구촌 안전보건		76
KOSHA NEWS		78
안전인증 현황	2012년도 10월 안전인증 취소현황	80
KOSHA info & 독자퀴즈		82



24



30



44



안전보건공단 백헌기 이사장(사진 왼쪽 두 번째)은 베트남 정부훈장 수여와 함께 베트남 도 트란 하이(Do Tran Hai) 노동보호 연구원장과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안전보건공단 백헌기 이사장, 베트남 정부 훈장 받아

베트남 정부, 한국 안전보건 지원에 감사

안전보건공단 백헌기 이사장이 지난 11월 8일 베트남 하노이에 소재한 노동보호사회부에서 베트남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훈장을 받았다.

안전보건공단은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베트남의 노동보호사회부와 2003년 기술협력 협정을 맺고 '베트남 산업안전보건 수준향상 지원 마스터플랜'에 따라 공단 전문가 기술자문, 베트남 안전보건관계자 초청연수, 안전보건 자료개발 등을 지원해 왔다.

백헌기 이사장은 "공단은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베트남 노동보호연구원과도 기술협력 협정을 새롭게 체결하는 한편, 베트남 산업안전보건 교육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지원 및 기술자문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 이고 밝혔다.



‘안전한 급식실 조성’ 기준 제시

안전보건공단, 국내 처음으로 기준 제정

학교나 기업, 병원 등 단체 급식실 종사자의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기준이 제시됐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지난 11월 27일 급식실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급식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한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최근 3년간 음식업의 경우 연평균 7,000여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등 주요 산업재해 발생 업종으로 부상한 데 따른 것으로, 주로 조리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등의 넘어짐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27.3%)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급식실 설계단계에서부터 조리원이나 영양사 등의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한 기준’을 만들었다.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한 기준’은 ‘물기를 최소화하는 조리실 만들기’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국물요리 등 물을 많이 이용하는 음식문화 특성상 물청소 등으로 인한 넘어짐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급식실을 ‘물기가 있는 구역(Wet-zone)’과 ‘물기가 없는 구역(Dry-zone)’ 등으로 구분해 사용설비와 작업 동선 등을 설계할 것과 바닥재의 재질, 배수조치, 설비별 안전조치 기준, 요통 등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기준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한 기준은 공단이 처음으로 마련한 것으로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정부 부처 협의를 통한 보급 확대로 기업·학교 및 병원 급식실 등 전체 사업장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CIAL REPORT

안전하고 건강한 송년회 만들기



비틀거리는 송년회 NO!

뜻깊은 송년회

yes!

2012년 임진년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으면서 어김없이 송년회의 시즌이 다가왔다. 한 해를 마감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추억을 회상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을 기원하는 송년회. 송년회 하면 '술'을 빼놓을 수 없었던 예전과는 달리 개성 넘치는 이색 이벤트나 문화행사, 봉사활동 등으로 한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송년회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송년회는 별 의미 없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술자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원하지 않는 술 강요와 2차 3차로 이어지는 술자리는 심신의 피폐는 물론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사회 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다. 올해 송년회는 술에 절어 지내기보다는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잘못된 일을 반성하고, 소홀했던 친구와 동료, 선배들과 한자리에 모여 우의를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자. 흥청거리고 비틀거리는 송년회가 아닌, 의미 있고 뜻깊은 송년회로 한 해를 보낸다면 다가오는 새해는 분명 장밋빛으로 펼쳐질 것이다. 글 편집실 참고도서 김태광 저 <술이 인생을 망친다>





흥청망청 망년회에서 개성 있는 송년회까지 송년회의 역사와 의미

해마다 연말이 되면 송년회는 꼭 치러야 하는 전통처럼 이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망년회라는 말로 불리다가 일제의 잔재라 하여 송년회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관습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송년회는 언제부터 시작됐고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SPECIAL
REPORT
1

안전하고 건강한
송년회 만들기

술로 한해의 노고를 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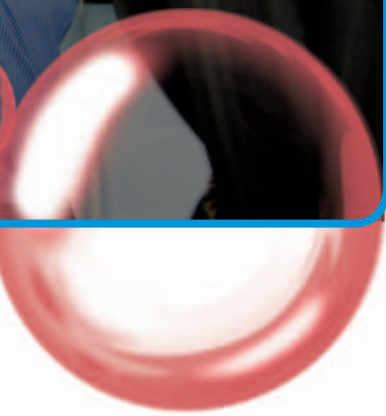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업체는 물론 여러 단체별로 송년회 준비에 한창이다. 그야말로 송년회 시즌이다. 예전에는 ‘한 해를 보내며 그동안 있었던 온갖 괴로움을 잊자’는 뜻의 일본식 한자어인 망년회(忘年會)로 더 많이 불렸지만, 요즘에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나누자’는 의미의 송년회(送年會)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망년(忘年)’이라는 말은 ‘나이(歲)를 잊는다’ 또는 ‘나이 차이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였다. 서거정의 <사가집>에는 ‘망년’이라는 말이 “나이를 잊는다”라고 나와 있으며, <고려사>에는 ‘망년우(忘年友)’와 ‘망년교(忘年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무신의 난 때 살아남은 젊은 문인들은 ‘망년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망년회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망년이라는 말은 몇몇 기록을 제외하곤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12월의 세시풍속과는 한참이나 거리가 멀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 ‘망년(忘年)’은 “일 년 동안의 노고를 모두 잊는다”는 뜻이다. 일본에서는 중세 때부터 망년 또는 연망(年忘)이라 하여 선달그믐께 친척과 지인들끼리 어울려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한 해의 노고를 모두 잊어버리는 풍속이 있었다. 이것이 망년회의 뿌리가 되었다.

이러한 망년회는 일본의 침략과 함께 우리나라로 구렁이 담 넘듯이 슬그머니 들어왔다. 1907년 12월





29일 자 <대한매일신보>에는 <실컷 논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년중에 내외국 관리들이 망년회니 하는 형형색색 의회가 빈번함으로 일본 로리집들은 크게 리악을 보았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시기를 전후에 망년회가 서울의 권력층과 지식층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처럼 특권계층의 전유물이던 망년회는 점차로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이후 망년회는 송년회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도 12월의 중요한 세시풍속으로 살아남아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송년회 문화

망년회의 관습이 이어져서 인지 송년회 역시 빠지지 않는 것이 술이다. 때문에 송년회 자리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 송년회 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회사에서의 송년회는 물론, 초·중·고 동창들부터 동네 친구들, 각종 모임까지 빠짐없이 송년회를 한다. 그러다 보면 12월 내내 연속된 송년회 술자리로 몸과 마음은 피폐해지기 십상이다.

그런데 요즘은 송년회 풍경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20~30대 직장 여성들을 중심으로는 ‘공연 송년회’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간단한 식사와 함께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며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다. 식사와 함께 뮤지컬 등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오븐 콘서트’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호되는 송년회 모임 장소 중 하나다. 한 해 동안 수고했던 자신을 위해 1박 2일 동안 교외로 나가 편히 쉬며 한 해를 정리하는 ‘펜션 송년회’도 최근 유행이다. 또한, 연말의 즐거움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봉사 송년회’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기존의 송년회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공연 관람은 물론 자원봉사, 캠핑 등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 해에 감사의 인사를 건네다

물론 기존의 이른바 먹고 마시는 전통적인 형태도 여전히 많이 애용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처럼 먹고 죽자는 식의 송년회는 점차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송년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참석하기 꺼려지는 송년회 유형을 묻는 질문에 직장인 중 44%가 ‘2·3차 술자리 이어지는 송년회’라고 답해 끊임없는 술과 지루하게 이어지는 송년회를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9%의 여성들이 가장 꺼리는 것으로 선택해 술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상사 눈치 봐야 하는 권위적인 송년회’가 23%를 차지했으며 ‘의미 없는 관례적인 송년회’, ‘직원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송년회’가 그 뒤를 이었다.

연말연시에는 괜히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들뜨는 게 사실이다.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혹은 의미 없이는 시간이 아쉬워서인지 혼자 조용히 보내기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도 사실이다.

송년회를 어디서 어떻게 보내든 상관없다. 올 한해 비록 바라던 바는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아무 사고 없이 지나왔다는 사실에 감사하자. 그리고 지인들과 한 해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나누자’는 송년회의 의미 그대로 한 해의 마지막 모습을 의미 있고 뜻깊은 기억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

정신은 혼미해지고 몸은 망가지고

술이 불러오는 위험 신호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주당들에게 연말연시는 빼놓을 수 없는 호기다. 송년회라는 말로 이런저런 핑계를 생각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술은 지킬박사와 하이드 같은 존재여서 평소에는 안전한 사람도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게 만든다. 술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SPECIAL REPORT 2

안전하고 건강한
송년회 만들기

잠자던 본성을 깨우는 술의 위력

술을 마셔보면 평소와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술을 주량보다 넘치게 마시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늑대'가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또 다른 내가 되는 원인은 술이 뇌를 '마취'하기 때문이다. 뇌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 그것은 바로 이성과 본능으로 구분되어 있다. 뇌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대뇌는 이성을 담당하는 신피질과 본능을 담당하는 변연피질로 나눌 수 있다.

인간은 본능을 억제하고 자제할 줄 알지만, 알코올이 몸 안에 들어가면 전세는 역전된다. 즉 알코올이 대뇌를 마취시켜 이성을 지배하는 중추신경계 기능이 억제되고, 감정과 본능을 관할하는 기능이 커진다. 그래서 평소 극히 이성적인 사람이 사소한 일로 언성을 높이거나 몸싸움을 하기도 하고 거친 욕설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처럼 술에 취하면 평소와는 다른 특이한 행동양식들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상습음주, 뇌가 호두처럼 쪼그라든다

술이 몸에 안 좋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간경화와 같은 질병에 걸린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 상습적인 음주가 뇌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알코올은 간세포를 파괴해서 간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뇌세포를 파괴하고 뇌의 기능을 손상시키기도 한다. 뇌에 침투한 알코올은 여러 신경전달물질의 작용과 분비를 방해해 뇌의





기능을 떨어 뜨려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 전문의들은 “상습음주는 뇌를 호두처럼 쪼그리들게 한다”고 충고한다. 또 뇌의 크기는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줄어들는데, 술을 마시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상습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학습 및 기억력과 관련한 뇌의 해마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문제는 손상된 뇌는 술을 끊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점이다.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기억력 감퇴와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필름 끊기는 현상은 알코올로 인한 뇌세포의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고다. 만일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술을 먹게 된다면 알코올성 치매라는 돌이킬 수 없는 질병에 걸린다. 알코올성 치매 때의 자기공명영상 사진을 보면 실제로 뇌의 전두엽이 쪼그라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미 뇌의 구조에 변화가 생겨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여성에게 더욱 치명적인 술의 위험

술의 폐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게 일어난다. 여성은 체질적으로 남성보다 술에 약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 대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같은 양의 술을 마셨을 때 혈중농도가 남자보다 두 배 정도 높아진다고 한다. 남성은 알코올 성분이 흡수되면 위에서 일차적으로 분해한 뒤 간으로 흘러들어 가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치지만, 여성은 위에서 걸러주는 일차대사 기능이 없어 곧장 간으로 흘러들어 가기 때문이다. 평균 남녀의 체중 차이를 고려해서 여자는 같은 양의 술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남성보다 두 배 정도 더 치명적이라는 이야기다. 또한, 여성은 대체로 알코올 분해효소가 남성보다 적게 분비된다. 같은 술을 먹어도 여성의 간이 더 빨리 나빠지며 이로 인한 사망률은 남성보다 다섯 배 정도 높다. 특히 뇌의 축소 현상도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두드러진다. 이는 알코올 흡수가 여성이 남성보다 빠르고 알코올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은 동료 관계나 업무에서는 평등하더라도 술자리에서만은 남녀를 구별해야 한다.

이어지는 술자리에 인생은 망가진다

우리의 일상에는 언제든 술이 빠지지 않는다. 승진, 결혼, 출산과 같은 기쁜 일에서부터 실직, 죽음 등 슬픈 일 그리고 1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까지 ‘일상다반사’가 술을 마시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술을 한잔쯤은 마실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술로 빚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하지만 술이 우리에게 주는 폐해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특히 대부분 술자리가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 3차로 이어지다 보면 여러 가지 신체질환이나 정신질환을 겪을 수도 있고, 술에 취해 저지른 추태 때문에 직장생활과 인간관계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음주운전이나 폭행으로 많은 금전적 손실을 보고 교도소에서 후회의 나날을 보낼 수도 있다.

이처럼 술은 마시는 양에 따라 유익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해악을 부르는 악마가 될 수도 있다. 술을 절제할 수 없다면 아예 마시지 말고 가까이하지 말아야 한다. 술에 취해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소중한하다. 🍀



나는 지난 송년회 때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송년회 때 생기는 사건 사고들

송년회 술자리에서 온갖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을 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폭행으로 파출소에 연행되는 사람도 있다. 정신을 놓은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얼어 죽거나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 과도한 음주로 빚어지는 송년회 술자리의 위험성을 살펴보자.



SPECIAL REPORT

3

안전하고 건강한 송년회 만들기



억지로 권하는 술이 '문제' 일으킨다

한 취업포털사이트가 직장인 1,684명을 대상으로 송년회 술자리 최악의 매너에 관해 조사한 결과 54%의 응답자가 '억지로 술을 권하는 것'을 꼽았다. 이처럼 송년회라는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술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몇 해 전 주량이 맥주 두 잔에 불과한 여직원 K씨는 직장상사의 술 강요를 견디다 못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술을 잘 못하는 K씨에게 집요하게 술을 마시게 한 것은 인격권침해"라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억지로 술을 강요하다 폭행 사고가 일어나는 일도 있다. J씨는 송년회 자리에서 직장상사가 술을 강제로 권하자 거절하면서 욕설을 했다. 그러자 상사가 J씨의 얼굴을 서너 차례 때렸고 J씨는 상사의 턱을 가격하고 넘어진 상사를 발로 밟아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혔다. J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선고받았다.

위의 두 사례에 나오는 일들은 억지로 술을 강요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상대가 술을 잘 마시건 못 마시건 억지로 권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정도를 넘어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만일 상대가 술을 과하게 마시다 귀가하는 도중에 사고라도 나면 어찌할 것인가? 사고 후 '그때 술을 억지로 권하지만 않았어도' 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술 취한 당신은 '범죄'의 먹잇감?

연말연시가 되면 거리에 비틀거리는 취객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 채 벤치, 골목길 심지어 도로 등 아무데서나 쓰러져 자는 경우가 많다. 이런 취객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예전처럼 술에 취해 잠들어 있으면 친절하게 깨워서 주소를 묻거나 경찰지구대에

연락해주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취객들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범죄수법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취객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해 지갑이나 귀중품을 훔쳐가기도 하고, 여성취객에게는 성폭행까지 일삼는 파렴치한 범죄까지 저지른다. 또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취객이나 여성을 노리는 날치기 범죄 등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범죄의 먹잇감이 된 취객들은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종종 생겨 연말연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한적한 골목길을 혼자 걷거나 너무 늦게 귀가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즉,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상대 역시 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지나친 음주는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통제력을 잃게 해 범죄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삶을 망치는 악마의 속삭임 '음주운전'

연말연시 술자리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음주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대부분의 음주운전자들은 상습적인 경우가 많은데, 음주운전 후 뺑소니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어서 사망하는 등 비참한 상황의 주인공이 된다. 한순간의 음주운전으로 인생이 끝장나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탓에 어느 나라든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불가리아는 초범은 훈방이지만, 재범은 교수형이다. 터키는 3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버린 뒤 집까지 걸어오게 한 후 집에서 구속된다. 핀란드는 한 달 월급이 모두 몰수되며, 엘살바도르에서는 총살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자 '살인행위'이다. 사고가 났다 하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가져가기 때문이다. 즐거운 송년회 술자리가 끝까지 유지되려면 '한 잔 정도는 괜찮아'라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반드시 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자. 그것이 당신과 타인,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 원칙이다.



송년 회식하다가 '성희롱' 당한다?

송년회가 일반적으로 회식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도 생긴다. 회식 자리 자체에서의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 회식 뒤 집에 데려다 주면서 동행하는 경우에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이런 성희롱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되면서 각 기업들도 송년회 회식자리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교육에서는 술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술 따르기 강요, 남성들끼리만 가는 2차 술자리, 술에 취해 할 수 있는 신체접촉 등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손잡기나 어깨동무, 포옹, 뽀뽀 등 불쾌하거나 과도한 신체접촉은 여성들이 꼽는 가장 기분 나쁜 성희롱 유형이다.

무엇보다 이런 성희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깔끔한 회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 또한, 연말연시를 앞두고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직원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



건강한 송년회를 도와주는 똑똑한 아이템

송년회 애플리케이션과 절주잔

연속되는 송년회 술자리는 간의 피로로 이어져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술을 못 먹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고역이다. 하지만 미리 준비를 한다면 '만사 튼튼'. 건강한 음주 정보를 제공하거나 괴로운 술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기발한 애플리케이션 등 송년회를 더욱 즐겁게 도와주는 아이템들을 소개한다.

SPECIAL
REPORT

4

1 음주문화의 종결자 당신 멋져

안드로이드 기반 앱으로 건배사를 비롯해 술계부와 해장법, 콜택시 및 대리운전 업체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구호 건배사', '스토리 건배사' 등 어색하거나 썰렁한 술자리 분위기를 띄우는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건배사와 재미있는 술자리 게임도 있다. 개인의 음주량 및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는 '술계부'와 누적 음주량 및 술자리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음주 통계 코너'도 요긴하다.



2 fake call me

이 앱은 일명 가짜 전화 도우미라는 이색 앱이다. 팀별 부서 회식, 전체 회사 회식, 동창회 모임 등 몇 차례 송년회를 연이어 하게 되면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일찍 집에 들어가고 싶는데 자리를 피할 핑계거리가 없을 때 유용하다. 가짜 전화가 울리는 시간과 발신자를 설정해놓으면 집에서 아내, 남편이 전화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전화를 받을 수 있다.



3 해장의 정석

음주상식, 음주 측정, 음주 뉴스, 음주 측정, 주변지도, 술술 토크(계시판) 등을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기반 앱이다. '말을 많이 해라', '음주 당일 사우나는 피해라', '물을 많이 마셔라' 등 건강하게 술 먹는 법과 자신의 몸무게, 성별,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도 측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외에도 주변 술집, 약국, 해장국, 대리운전, 편의점 등도 찾아주는 편리한 앱이다.





4 절주잔

과음을 막기 위한 절주잔도 송년회 때 이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절주잔은 과음을 경계하려고 중국 고대에 만들어져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계영배(戒盈杯)'를 본떠 만든 것이다. 계영배는 술이 잔에 70% 이상 차면 술잔 밑으로 술이 새어나가도록 만든 술잔이다. 절주잔은 바닥을 2cm가량 높여 기존 소주잔보다 술이 40~50% 정도 적게 들어간다. 따라서 절주잔으로 소주를 마시면 기존의 잔으로 마셨을 때보다 훨씬 적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된다.

5 음주생활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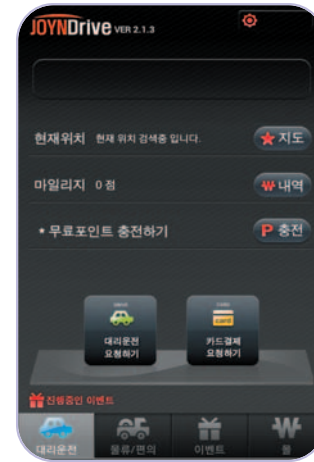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 사용 가능한 앱이다. 술자리 검색 기능부터 음주측정, 숙취해소법, 술 잘 마시는 법, 대리운전 정보 등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음주측정법이 게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재미있다. 문제를 풀어서 제대로 못 맞추면 빨리 집에 가라는 등의 메시지가 뜬다. 술자리를 찾을 때 해당 지역에서 원하는 메뉴에 따라서 검색하고 전화로 예약까지 가능하다.

6 조이 앤 드라이브

이 대리운전 앱은 다른 대리운전들과는 차별화된 것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자신이 있는 위치를 보내고 대리운전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곳은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하다. 더불어 마일리지도 적립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자체 포인트 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물류/편의 코너에는 콜택시, 택배회사, 퀵서비스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전화번호들도 제공한다.

7 애정앱 RealGift 선물추천

어떤 선물을 사야 할지 고민인 사람들을 위한 선물 추천 앱이다. 선물을 주고받을 일이 많아지는 연말연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선물 받을 사람의 성별, 나이, 성향, 예상 가격대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카테고리별로 추천 선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및 상품 정보는 물론, 선물의 의미, 역사, 종류 등 관련 정보 탐색도 가능하다.

8 스마트 숙취해소

친환경 그린 음악을 활용한 앱으로 음주 후 다음날 숙취가 발생할 경우 약 2,000Hz의 경음악에 자연에서 녹취한 새소리, 물소리 등



자연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곁들여 제작됐다. 그린음악을 들으면 체내 독소 해독 능력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앱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모두 다운받을 수 있지만 소정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유료 앱이다.

국민 여러분!

안전 앞에
늘 겸손하세요!



추천해주세요 산재예방 달인



산재예방 달인이란?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숨은 공로자를 매월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추천방법

인터넷 또는 우편(E-mail) 접수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기간 및 포상

- 연중 수시 접수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패를 수여
※ 산재예방유공자포상(매년 7월)시 가산점

추천대상

남다른 소신과 열정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신 분
※ 안전보건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신 분

문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산재예방정책과(전화 02-6922-0922, 0920)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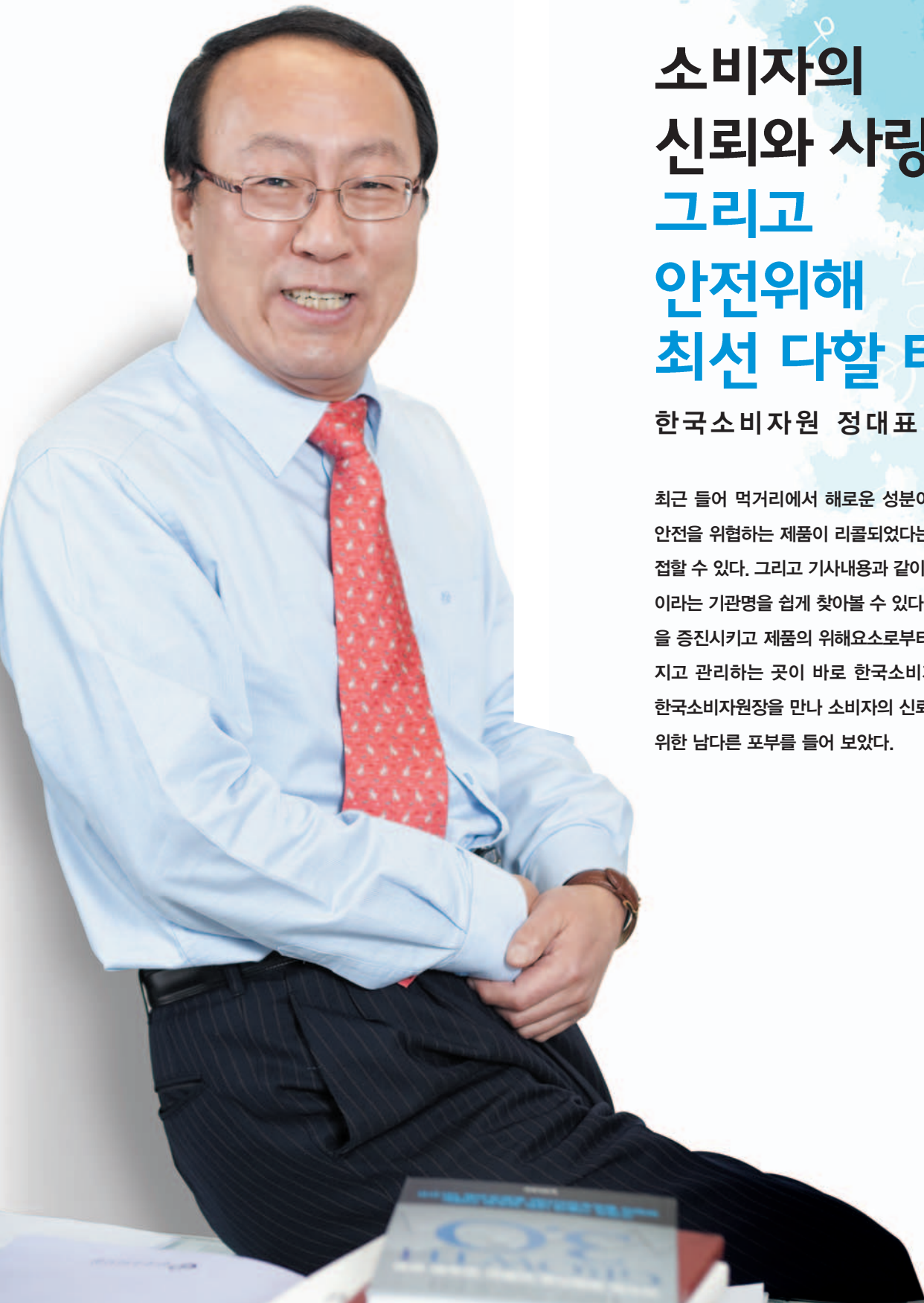
열정의 현장 • Passion

20 KOSHA 파트너 24 산재예방 달인 28 화제의 현장

30 무재해 실천일지 34 화제의 명예감독관

38 만화로 보는 안전보건





소비자의 신뢰와 사랑 그리고 안전위해 최선 다할 터

한국소비자원 정대표 원장

최근 들어 먹거리에서 해로운 성분이 나왔다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리콜되었다는 기사를 언론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리고 기사내용과 같이 등장하는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기관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제품의 위해요소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곳이 바로 한국소비자원이다. 정대표 신임 한국소비자원장을 만나 소비자의 신뢰와 사랑 그리고 안전을 위한 남다른 포부를 들어 보았다.

① 올 9월 한국소비자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의 활동상과 소회를 전해주시오.

취임한 지 이제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미래발전전략에 관한 워크숍을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과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 소비자원의 사업과 기능을 미래 성장 사업, 업무 효율화사업, 업무 조정 사업의 세 가지 군으로 나누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업무 파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 피해 구제·예방 등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장으로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법조계에서 수행해왔던 업무 또한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의 구제와 예방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한국소비자원의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생활과 관련된 법률의 적용이나 집행 경험을 토대로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한국소비자원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독자들에게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1987년 7월 경제기획원 산하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됐으며, 2007년 3월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소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기관명은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물품 등의 시험·검사, 소비자 권익증진과 안전 등을 위한 정보 제공,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접하는 모든 분야의 영역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위험 제품의 경우 해당 사업주나 언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과거에는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그것을 '보상'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피해 원인을 먼저 찾아내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③ 안전보건공단과도 업무협약을 맺는 등 밀접한 업무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소비자'와 '안전'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식품은 물론 화장품이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등 소비되는 모든 제품은 '안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날이 갈수록 소비하는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 품질이나 성능뿐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보건공단과의 상호 파트너십을 통한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2008년 12월 협약을 맺은 이후 지속적인 업무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한국소비자원은 앞서 말씀드린 미래발전전략 워크숍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미래 성장 사업의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비자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공단과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Profile

1956년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 석사), 사법시험(27회) 합격, 서울지검 등 검사, 대검찰청 마약과장 등 부장검사, 울산지검 차장검사, 부산 동부지청 지청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現 한국소비자원장



4 요즘 스마트컨슈머를 통한 각종 상품비교테스트가 언론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세요.

품질비교 정보 대상품목은 국민적 요구가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내부 심의 절차와 외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정됩니다.

품질 비교정보의 핵심은 공정성 확보입니다. 자칫 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학계·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품질 비교 대상의 선정, 시험방법 검토, 결과의 적합성 등을 철저히 검증합니다. 또 이 시험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제공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의 합리적인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품질 비교정보를 통해 소비자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업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원은 업무 성격상 일이 너무 광범위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5천만 전 국민이 소비자이고 생활 속 모든 문제가 소비자문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으로 쉽게 잘 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6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과거 우리나라는 빠른 성장과정에서 소비자와 근로자의 '안전' 문제는 다소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선진국일 수록 자국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안정을 이룩한 우리나라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소비자 안전 확보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이죠.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는 소비자가 갖는 권리 중에서 가장 우선 시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때문에 정부, 기업 및 소비자 등 관련

주체 모두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 한국소비자원도 Recall 기동반 등 안전사고가 생기면 현장으로 바로 조사를 나가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7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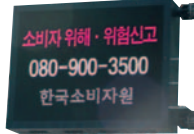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기술표준원 등 국내 안전 관련 정부 부처에서도 소비자 권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사각지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유일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분석·제공하고, 우리나라의 소비자안전시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 명실상부한 소비자위해정보를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소비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국소비자원도 앞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대외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안전’ 지키는 영원한 ‘동반자’

안전보건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의 파트너십



세월 뛰어넘은 ‘평생’ 파트너

안전보건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의 인연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기관 모두 1987년 출범, 더구나 공교롭게도 같은 건물 안에서 두 조직의 첫 기틀이 세워졌다.

하지만 ‘소비자’와 ‘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당시 두 기관의 협력 체제는 구축되지 못했다. 그러던 사이 양쪽 모두 조직을 성장시켜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갔고, 2007년 드디어 소비자안전센터가 설립되면서 ‘안전’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한, 각각 ‘소비자’와 ‘근로자’로 따로 떼어 생각했던 양 조직의 주체가 실은 ‘같다’는 것도 깨달았다. 모두가 ‘일’을 하는 근로자인 동시에, 경제를 ‘소비’하는 같은 사회의 국민이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양 기관은 바쁘게 움직였다. 20여 년의 시

간을 하루라도 더 되돌려놓기 위해 단계적으로 협약을 추진해 나갔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공식적인 협약을 맺게 되었다.

2008년 12월 16일, 안전보건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은 공식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안전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사업의 진행을 통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기 시작했다.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책임지던 공단으로서는 생활안전 영역까지도 두루 포괄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소비자원 역시 공단의 화학물질 정보 및 시험검사 등을 활용해 소비자 안전 향상을 위한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20년 단짝이 깊은 우정을 단단히 쌓는 데 ‘안전’이라는 연결고리가 큰 역할을 해냈던 것이다.



국민의 안전, ‘함께’ 책임진다

지난 2010년 5월, 두 기관은 안전 워크숍을 개최해 분야별로 서로의 업무를 소개하고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제42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공단과 소비자가 공동 주최한 ‘농촌지역 소비자 안전 토론회’를 통해 안전 취약계층인 농업 분야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대안이 제시되는 등 단독 주관행사보다 훨씬 큰 시너지 효과가 발휘됐다.

더불어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한 소비문화 유도 및 위해정보 신고 서비스(CISS)를 공단의 전국 조직망을 통해 홍보했고, 공단은 전국에 운영 중인 전광판을 통해 이 같은 안내 문구를 내보냈다. 소비자원은 이를 통해 위해정보 자체수집 채널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이처럼 안전보건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은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겹치는 영역이 많다. 처음부터 같은 건물, 같은 해에 태어난 우연마저 어쩌면 ‘정해진’ 인연이 아니었을까?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 그 현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은 모두 똑같다. 결국 ‘국민’ 모두의 안전이 이들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려면 우선 주변 위험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 그 안전을 오랜 친구인 소비자와 공단이 ‘함께’ 손 맞잡고 지켜나가고 있다. 안전으로 단단히 묶인 오랜 우정이 안전이란 단단한 끈을 통해 국민의 안전이라는 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열정의 현장 | 산재예방 달인

글 이환길 사진 김흥진 | B612 스튜디오

영양가 높은 안전으로 현장 행복 채우기

(주)포스코엔텍 광양 포장사업부문 안전팀
김일곤 안전담당자

THE NUTRITION IN SAFETY THE NUTRITION IN SAFETY

THE NUTRITION IN SAFETY THE NUTRITION IN SAFETY

도시락처럼 안전을 싸들고 다니며 동료의 하루를 안전으로 배불리 채워준다. 영양가 높은 반찬만을 엄선해 정성껏 도시락을 담은 부모의 마음으로, 동료에게 건강한 안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김일곤 안전담당은 안전관리개발에 정성을 더하고 더해왔다.



작업표준 준수로 FM안전 실천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 눈앞에 놓여 있다 한들, 손가락질 젓가락질을 하지 못한다면 그저 그림의 떡일 뿐. 안전을 받아들이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안전의지라는 손가락과 젓가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포스코엠텍 광양의 김일곤 안전담당은 계층별로 안전활동에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안전의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일반 사원, 주임, 파트장, 부장, 임원까지 안전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안전활동을 분담하고 안전팀은 이를 수시로 모니터링 및 검토합니다. 감시의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돕는’ 근로자 의지 보완 개념의 시스템으로 계층별 역할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한 후 시행한 것이죠.”

특히 작업표준을 구축해 비정상작업을 제어하고 작업 방식 관련 자가진단의 계기를 마련했다. 과거 재해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재해는 표준에서 벗어난 비정상 작업과 저근속직원의 불안정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가 상당수였다. 이에 문서로 작업표준을 체계화하고 작업표준에 대한 자가진단 시트를 제작해 개인별로 배포했다.

근로자는 시트에 나열된 작업표준 항목을 따라 스스로 얼마만큼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고 경각심을 가진다. 또 잘못된 작업 관행의 답습을 방지하고자 입사 2년 미만 저근속직원에게 담당 멘토를 지정해준다. 저근속직원은 담당 멘토와 함께 작업표준을 학습하고



공유하는데, 작업표준에 대한 공동 책임자로서 담당 멘토 역시 후배를 챙기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그릇된 작업 관행을 발견하고 새로이 불안정 행동을 개선하게 된다. 작업표준을 익히는 근로자와 이를 지도하는 근로자 모두의 안전의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료의 안전 살피기, 나의 안전 돌아보기

작업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불안정 행동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평소에 아무리 안전에 철저하던 근로자라 할지라도 잠깐의 방심으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법이다. 때문에 이곳 현장에서는 이러한 동료의 불안정 행동을 관찰하고 지적해주는 ‘동료사랑 상호주의’ 활동을 펼치며,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상대의 안전도 볼 수 있는 폭넓은 안전 시선을 키워간다.

예를 들어 작업 중 동료의 불안정 행동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게시판에 등록한다. 그리고 지적받은 동료는 게시판에 올라온 자신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지적해준 동료에게 감사의 댓글을 달아야 한다. 상대의 불안정한 상황을 서로 체크해주고 안전에 대한 소통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다. 또한, 동료의 불안정 행동을 통해 자신의 태도 또한 돌아보게 되고, 안전작업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게 된다. 이에 김일곤 안전담당은 안전작업의 실천에 여유와 기다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해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조급함과 서두름에 의한 원인이다 수입니다. 작업 전 TBM을 비롯해 작업 중 지적 활동 등 잠시만이라도 주변을 돌아보고 위험을 바로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험을 발굴했다 하더라도 발굴자가 이를 직접 개선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단계 Near Miss 개선 활동'을 시행해왔다. Near Miss란 아차사고의 뜻으로, Near Miss를 체험한 근로자가 사건 발생 5일 이내 관련 위험 내용을 게시 시스템에 등록하면, 등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파트장이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대책 등록 후, 개선 담당자가 20일 내로 실질적인 개선을 실행하고 이후 안전팀에서 개선대책 및 실행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한다. 검증이 끝나면 해당 파트장은 검증 완료 1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전과 교육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조업팀장이 개선에 대한 격려문과 당부 사항을 게시함으로써 해당 Near Miss 5단계 활동은 종료된다.

여기에 덧붙여 즐거운 마음으로 지속적인 안전활동을 이루기 위해

‘오감활동’도 펼치고 있다. 오감활동이란 매일 다섯 가지 감사의 마음을 통해 안전의지를 북돋우는 감사운동으로 근로자들은 ‘감사노트’를 지니고 다니며 감사한 일을 기록한다. 경비아저씨의 아침 인사부터 맛있는 점심 등 사소하기에 지나치기 쉬운 감사의 모습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회의 시 동료들과 공유한다. 이렇게 생성된 긍정의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쉬이 극복하고 또한 안전에의 의지는 한층 더 성장한다. 1분에 1번씩 웃는 ‘1분1소 운동’도 마찬가지다. 서로 마주 보며 웃음을 전파함으로써 현장에는 긍정의 생각들이 자라난다.

설비안전개선으로 현장 안전 완성

안전의지가 안전을 챙겨 먹는 젓가락 역할이라면, 설비안전개선은 현장 안전을 완성하는 밥솥의 역할일 테다. 밥솥이 푹푹할수록 밥이 맛있게 완성되듯, 얼마나 푹푹한 안전설비를 갖추었는가에 따라 현장의 안전은 그 완성도를 달리한다. 김일곤 안전담당은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올 한 해만 346건의 설비안전개선을 진행했으며,

이러한 안전시설개선예의 집중은 협력사 현장까지 이어졌다. 포스코엔텍 안전설비 기술을 협력사에도 지원, 수십 개의 잠재 위험을 제어했다.

피드롤에 소재 투입 시 작업자의 장갑이 물리면서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피드롤 방호 커버를 제작했고, 임의조작에 의한 작업자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판넬 설비조작 레버 잠금 커버를 설치했다. 또한, 스킵프 이송 작업 시 작업자와 스킵프 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팬던트 스위치 케이블의 길이를 확장했다. 이처럼 수 백 개에 달하는 안전설비개선은 곧 수 백 번 솟아오른 김일곤 안전담당자의 안전 열정을 증명한다.

안전 의지를 통해 '하고 싶은 일' 이 될 수 있도록, 안전 자부심을 통해 '오고 싶은 회사' 가 될 수 있도록, 안전 믿음을 통해 서로 '만나고 싶은 동료' 가 될 수 있도록, 김일곤 안전담당은 (주)포스코엔텍의 '하오만' 문화를 바탕으로 오늘도 근로자에게 즐겁고 믿음직한 안전을 나눠준다.

김일곤 안전담당이 전한 따끈따끈한 안전을 가슴에 품고 든든한 하루를 보내는 근로자들. 영양가 높은 안전 덕에 현장의 행복은 쑥쑥 자라나고 있다. 🌱



| 산재예방 달인의 현장 안전 성장 3대 영양소 |



① 저근속직원에 담당 멘토 지정

저근속직원이 작업표준을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숙련된 안전작업자를 멘토로 붙여준다. 작업표준 항목에 맞춰 작업하며 함께 작업표준을 익힌다. 또한, 저근속직원을 관리하는 동안 멘토 역시 스스로 불감했던 자신의 불안전습관을 돌아본다. 작업표준이라는 명확한 안전 기준 앞에 저근속직원과 멘토는 동시에 반듯한 안전의지를 완성해간다.



② 상호 간의 지적활동으로 동료사랑 실천

누구나 잠깐의 방심으로 불안전상황에 놓일 수 있다. 동료의 불안전 행동을 발견했을 시, 발견자는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지적 의견을 게시하고 지적받은 동료는 해당 지적에 감사의 댓글을 단다. 서로 지적하고 독려하는 '동료사랑 상호주의' 활동으로 안전작업에 여유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③ 하루에 최소 다섯 번 감사하기

하루 다섯 번의 감사를 실천하는 오감활동으로 긍정의 마인드를 키운다. 간식을 나누는 동료의 마음에 감사, 후배의 따뜻한 인사에 감사, 깨끗한 화장실에 감사 등 감사를 습관화하다 보면 생활 모든 부분에 감사하게 된다. 감사노트에 감사의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고 회의 시간마다 동료와 공유하며 긍정의 마인드를 전파한다.

대한민국 안전을 향한 꾸준한 발걸음

‘안전점검의 날 200회’ 기념행사

지난 11월 5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강당에서는 ‘안전점검의 날 200회’ 기념행사가 열렸다.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으로 자리 잡은 안전점검의 날. 어느덧 200차를 맞이한 안전점검의 날 기념행사를 돌아보았다.



안전문화운동으로 자리 잡은 ‘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의 날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1995년 부산 한진 중공업 선박 화재사고를 계기로 1995년 2월 정부가 ‘범국민 안전 문화운동’을 전개하며 시작됐다. 같은 해 12월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시행기로 했다.

1996년 4월 4일 노·사·정 대표가 공동 참여하는 중앙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용산 민자역사현장, 청계천 복원 공사현장 등 본격적인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2004년에는 3월 11일 ‘안전점검의 날’ 법제화로 소방방재청에서도 전체 행정조직을 통해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사항 등에 대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점검 실천이 국민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대표적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으로 발전, 정착되고 있다.

안전보건 의 날 200회 기념행사 열려

이처럼 대표적인 안전문화운동으로 자리 잡은 안전보건의 날 행사가 지난 11월 5일 200차를 맞이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강당에서 열린 이날 ‘안전관리현장 선포 8주년’



및 '제200차 안전점검의 날' 기념식에는 각계각층의 안전 활동가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에 뜻을 모았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기념식에서는 안전관리현장 선포, '위기탈출 사고포착 앱' 시연 등 안전실천 퍼포먼스가 이루어졌고, 안전문화유공 일반시민·공무원 29명에게 대통령 표창 등의 영예가 주어졌다.

이어 안전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현대자동차 주관으로 '2012년도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진행되었다. 발표된 우수사례는 교육, 공공, 자원봉사(NGO), 민간기업 4개 부문 등 총 12건으로 '영유아·어린이·성인을 위한 새로운 자전거 안전문화 교육', '워킹스쿨버스 운영사업',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 등 현장에서 다양하게 실천 중인 사례

위주로 선정됐다.

이날 '안전관리현장 선포 8주년 기념식'에서는 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 이주영 부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문화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2부 행사로 진행된 2012년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제주지도원(JEJU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특별한 동행)이 공공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안전점검의 날 200회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학로에서는 '체조송 포토이벤트'와 '위기탈출 다국어회화 다운로드 이벤트' 등이 펼쳐졌으며, 전국의 지자체(250개소) 및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의 전광판에 '조심조심 코리아' 슬로건 및 안전보건 UCC 홍보캠페인도 전개됐다.

200회를 맞이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우리나라 안전문화를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열정의 현장 | 무재해 실천일지

글 이환길 사진 김홍진 | B612스튜디오

견고한 안전과 따뜻한 존중으로 무재해 행복 완성

GS건설(주) 대전 센트럴 자이 아파트



너를 존중하고 나를 아끼는 마음은 우리의 안전의지를 완성하고, 튼튼히 바로 세운 안전의지는 마침내 무재해 현장을 만든다. 무재해의 행복이 끝끝내 지켜질 수 있도록 GS건설(주) 대전 센트럴 자이 아파트 현장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튼튼한 안전으로 서로 감사 안는다.



달콤한 존중과 배려, 자라나는 안전의지

GS건설 대전 센트럴 자이 아파트 현장은 총 18개 동 1,152세대 구성으로 대전시 공사 규모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2013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5%를 넘어섰다. 공정이 진행될수록 안전이 전하는 기쁨도 함께 높아진다. 이곳 현장은 '기쁨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사업장 모토로 내세우고, 편안하고 쾌적한 현장을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애써왔다.

이른 아침, 이화식 현장 소장이 매서운 바람에 움츠린 근로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달콤한 사탕을 한 줍씩 나누며,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것을 독려한다. 매일 아침 근로자에게 달콤한 아침을 선사하는 이화식 현장 소장. "고된 일터가 아닌 상쾌하고 즐거운 일터로서 근로자에게 신선한 에너지를 안겨주고자 노력한다"며 '즐거운 안전'의 가치를 이야기해본다.

"즐겁고 편안해야 기쁜 마음으로 작업에 임할 수 있죠. 근로자의 노고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칭을 사용하고, 마주할 때마다 안부를 묻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늘 경청하려 합니다. 또한, 쾌적하고 깔끔한 환경 구축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마음이 즐겁고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때 근로자는 스스로 안전을 챙길 수 있습니다."

호텔 수준의 청결을 자랑하는 화장실에는 최신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다. 상큼하고 밝은 분위기의 식당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장소'를 떠나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으로 환영받는다. 게다가 수질 검사를 통과한 지하수를 현장으로 유입, 근로자들은 깨끗한 천연 지하수로 갈증과 피로를 해소한다.

또한, 신규 근로자들에게는 첫 출근부터 진심을 선물한다. 신규 근로자들의 어색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일일이 환영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GS대전센트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전 주의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라는 정성 어린 메시지에 어색했던 마음은 포근히 위로받고 그 덕분에 빠르게 현장에 적응할 수 있다.

협력사와 족구대회, 축구대회, 등반대회 등 함께 운동을 즐기며 근로자 간에 정을 쌓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이처럼 친근한 분위기 속에 소통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원활한 소통 속에 안전의지는 빠르게 전파된다.



함께 토의하고 공부하는 100점자리 안전현장

기름진 터전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듯, 좋은 분위기 속에 안전의식은 단단히 자라난다.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계획적인 점검과 교육이 이루어진다. 주요 위험 작업 전에는 작업 방법과 안전 실천을 공유하는 ‘사전 안전작업회의(PCM)’를 진행한다. 안전 관계자와 직원 그리고 협력사 반장과 근로자가 모두 참석하며 안전한 하루를 꼼꼼히 계획한다.

여기에 ‘일일안전회의’를 더하는데, 이화식 현장 소장의 주도로 각 협력사 소장과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일의 고위험 작업에 대해 토의하며 철저히 안전을 준비한다. 즉, 사전 안전작업회의로 작업 직전의 안전 계획을 세우고, 일일안전회의로 매일 변화하는 작업 환경에 대응할 안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TBM은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시행한다. 아침 TBM으로 하루의 안전을 계획하고, 오후 TBM으로 남은 하루의 안녕을 다짐한다. 또 협력사 반장을 포함한 근로자 그리고 타워크레인 기사는 ‘혁신학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혁신학교는 GS건설이 운영하는 용인시 소재 안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업무별 최소

1박 2일에서 3박 4일의 교육을 진행한다. GS건설의 현장 환경에 걸맞은 집중적인 안전교육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은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모두가 안전관리자라는 생각으로 안전에 집중할 때 행복을 전하는 현장이 될 수 있다”며, 안전관리팀 장진한 과장이 안전의 가치를 다시금 강조했다. “인간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 직원, 협력사 책임자, 반장님, 근로자 개개인 모두가 안전관리자라는 생각으로 안전에 몰두합니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팀으로 연락을 취합니다. 처음에는 귀찮은 마음에 근로자의 불만도 없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근로자 건강관리 역시 현장 안전관리의 주요 포인트다. 건강검진실의 간호사가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며 진료와 면담을 진행한다. 혈압, 혈당 등을 체크하고 작은 사고 시에는 드레싱, 소독 등의 응급 치료를 병행한다. 특히, 동절기에는 갑작스러운 야외 활동으로 인한 뇌졸중 발병 위험이 커 아침마다 유소견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밀착 검사와 면담을 시행한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바로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안전 발판 설치로 매번 발판을 거치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리프트와 작업 층 간 100% 안전 이동이 확보됐다. 지하에는 화재방지 시스템을 겹겹이 마련했다. 가설 소화전을 비롯해 화재 비상벨을 여덟 군데에 장착했고, 신속 탈출을 위해 비상 출구 표시등을 곳곳에 설치했다.

이렇듯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과 시설부터 근로자 건강관리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GS건설 대전 센트럴 자이 아파트 현장은 근로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착한 현장'이다. 안전 속에 하루하루 보람된 행복을 일굴 수 있도록 오늘도 근로자와 미소로 마주하고 안전으로 손을 맞잡는다.

“현재 무재해 2배수를 달성했고, 준공까지 무재해를 지켜갈 것입니다. 무재해라는 공동 목표하에 GS건설, 협력업체, 그리고 모든 근로자는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즐겁고 행복한 현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로자 편의부터 안전까지 책임지는 '착한 현장'

현장에 장착한 안전기술 역시 수준급이다. 비계 조립 시 상단 덮개를 설치함으로써 낙하물에 의한 사고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 견출이나 도장 등 외벽 로프 작업 시에는 시견장치를 로프에 결탁하고, 작업 상황을 알리는 주의 문구를 부착한다. 또한, 타워크레인마다 개인용 화상 통신 모니터를 설치함으로써 안전관리자와 타워크레인 기사가 직접 얼굴을 보며 소통할 수 있게 했다. 음성 무전만으로 전달하기 어렵던 부분도 모니터를 통해 정확히 전달한다. 리프트 이동이 잦은 건설 현장이만큼 추락 위험 방지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리프트 출입문과 건축물 사이의 틈새에 안전발판을 설치해 혹시 모를 추락을 방지했다. 수동으로 발판을 거치하고 이동했던 기존에는 자칫

GS건설(주) 대전 센트럴 자이 아파트 현장의 무재해 스타일 셋!

1. 달콤한 사탕 나누기, 근로자 존중 더하기



출근 시간, 현장 소장은 입구에서 사탕 바구니를 들고 근로자들에게 격려의 인사와 함께 달콤한 사탕을 전한다. 소박하더라도 근로자를 향한 정성 어린 존중의 표현을 더할 때마다 근로자들은 활기를 얻고 안전의지를 한층 키워간다.

2. 혈압, 혈당 체크 등 현장 밀착 검진



건강검진실의 간호사가 수시로 현장을 돌며 혈압과 혈당을 체크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뇌졸중 발병의 위험이 큰 만큼 고령 작업자나 유소견자를 중심으로 수시 면담을 시행하고, 혈액 순환을 위한 스트레칭을 교육하기도 한다.

3. 안전발판으로 리프트 이동 안전 확보



건설 현장 특성상 리프트 이동이 잦은 만큼 리프트에서 작업 층으로의 이동은 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리프트와 작업 층 사이 틈새마다 안전발판을 설치했다. 일종의 다리 역할로써 리프트와 작업 층 간 안전 이동을 확보했고, 또한 발판의 수동 거치로 인한 기존의 불편을 제거했다.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싣고 행복을 향해 달린다

인천교통공사 · 김영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매서워진 겨울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두툼한 외투는 필수다. 따뜻한 스웨터는 물론 단추를 빈틈없이 잘 여미는 것도 중요하다. 안전도 이와 같아서 안전제도,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시설 등 겹겹이 충분한 안전 외투를 준비했을 때 사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의 가치를 동료와 시민에게 전하기 위해 인천교통공사 김영표 명예감독관은 오늘도 안전을 가득 싣고 행복을 향해 열차 위에 오른다.



정신보건프로그램으로 기관사의 불안 제어

김영표 명예감독관은 인천교통공사 승무센터에서 본선기관사로 근무 중이다. 승객 모두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김영표 명예감독관의 열차는 늘 한결같은 길을 달린다. 물론, 기관사로 근무하다 보면 다양한 위험 상황에 직면하곤 한다. 지하철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에피소드를 말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사고는 바로 사상사고이다.

자살을 목적으로 뛰어들거나 술에 취해 선로로 추락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기관사들은 사고 순간을 고스란히 마주할 수밖에 없다. 사고 목격 기관사는 심한 우울증에 걸려 악몽이나 환청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자칫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기에 '정신보건프로그램'의 마련으로 기관사의 심리 치료를 돕고 있다.

“기관사들은 선로에 뛰어드는 자살자와 눈이 마주치기도 합니다. 타인의 죽음을 1차적으로 목격해야 하기에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의 크기는 엄청납니다. 이는 기관사뿐만 아니라 역무원도 마찬가지죠. 이 때문에 사상사고를 겪은 기관사와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즉각 정신보건관리를 진행합니다.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통해 치유를 돕는 거죠.”

사상사고를 마주한 근무자에게 며칠의 위로 휴가를 주고, 정신전문과의 진찰을 반드시 제공한다. 심리평가 등으로 현재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불안정한 상태일 경우 치료를 지속한다. 안정적이

라고 판단되더라도 그 정도와 경우에 따라 사상사고의 영향이 적은 기타 직무로 재배치되기도 한다. 현재는 기관사와 역무원들 중심으로 정신보건프로그램을 이행하지만, 사무직으로까지 넓게 확장해갈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 연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 직종보다 지하철 기관사의 우울증은 2배, 외상성 스트레스는 4배, 공황장애는 자그마치 7배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관사 개인의 정신 문제는 수백수천명이 탑승하는 열차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보건관리는 필수입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사고를 차단해줄 스크린도어를 전역으로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빨리 스크린도어부터 완료해야 합니다.”

꼼꼼한 안전 시선으로 다양한 위험 발굴

정신보건프로그램 외에도 개별 면담을 통해 업무 건의와 불편을 접수하고, 면담 시 불안 증상이 발견되면 정신보건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안전운행 독려 행사'의 진행으로 현장 운행 기관사들에게 음료 등의 간식을 건네며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한다. 별거 아닌 듯하지만, 독려를 통한 분위기 전환 효과가 작지 않음을 강조한다.

“기관사는 운행 내내 혼자 앞만 바라보며 집중해야 합니다. 무척 답답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죠. 아주 잠시겠지만, 반가운 인사와 격려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살이나 선로 추락 외에 승하차 구간에서의 끼임이나 충돌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유선 CCTV로 출입문 개폐 시 승강장 상황을 주시한다. 이는 기존의 무선 DMB 시스템을 유선으로 전환한 것으로 송수신 간 시차로 인한 지연을 방지한다.

“무선 DMB로 하다 보니 송신 시차로 1~2초간 수신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보기 위해 유선으로 전환했습니다. 모니터 역시 빛의 반사나 시설물에 가려지지 않도록 기관사가 확인하기 편리하게 선로 방향으로 배치했습니다.”

사상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개선의 중요성은 사업소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회사 내 입출고선 및 시운전선 통행 건널목마다 경고 표지판 대신 경고 신호 장치를 장착했다. 열차가 다가오면 소리와 빛으로 알려준다. 기존의 정지 경고판이 시야를 가려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호 체계로 교체한 것이다. 기관사들이 운행승차 시, 무거운 가방이나 장비를 들고도 쉽게 탑승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사 승하차 안전 계단이나, 선로 작업 및 점검을 위한 안전 발판도 보다 깊은 안전 지혜를 발휘한 개선 시설물들이다. 특히, ‘100인의 안전지킴이’ 라는 제안제도를 만들어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한다. 현업부서와 사업소에서 개선 사안을 발굴해 꼼꼼히 해결하고, 규모가 큰 개선안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가 공동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차량기지는 물론 인천1호선 전역을 대상으로 개선점을 발굴한다. 승강장 소화기 관리 개선, E/S 비상정지버튼 개선, 출구 외벽 대리석 보수, 비상 인터폰 사용설명서 보완 등 안전과 관련한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해 개선한다.

30km의 안전점검, 365일의 안전운행

이렇듯 철두철미한 안전관리로 2012년 11월 기준 무재해 4배 달성을 비롯해 3,150km 무사고 안전운행을 기록했다. 김영표 명예 감독관은 “세상에 안전이란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안전활동을 이어왔음을 밝히며, 점검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다. 선로가 단전되는 새벽 2시~4시 사이 주요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차량 정비장을 수시로 순회한다.

“작업환경 조사,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석면 조사 등의 각종 조사에 동반 입회하고 있습니다. 또 점검으로 발굴했거나 현업부서로부터 요구된 내용은 노동조합 회의에서 논의한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으로 상정합니다. 사업 특성상 여러 직무(차량정비, 토목, 건축, 설비, 전기, 전자, 사무, 승무)가 30km에 걸쳐 있어 다양한 위험이 잠재하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점검은 시설에만 머물지 않는다. 시설을 다루는 사람이 멀쩡해야 시설도 안전하게 돌아가는 법. 열차를 직접 몰아야 하는 기관사는 누구보다 몸과 마음이 반듯해야 한다. 위험예지훈련 시 기관사들은 매번 음주측정을 시행하며,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또한, 사진과 정보로 구성된 위험예지훈련카드를 제작해 사고사례와 작업별 숙지 사항을 매일 체크한다. 이처럼 김영표 명예감독관은 “공공사업장으로서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종류의 위험이든 반드시 방어해 갈 것”을 다시금 다짐해본다.

“향후 계획으로 노·사·시민 단체가 함께하는 ‘안전자문회의’를 계획하고 있고, 대시민 안전보건 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공공사업장의 특성상 전역이 다중이용시설이니만큼 안전관리가 근로자를 넘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직결됨을 인식해야 합니다. 현장 안전의 주치의로서 현장과 밀착해 꾸준히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을 치료해가겠습니다.”



김영표 명예감독관의 ‘365일 안전 운행 현장’



● 기관사 정신보건프로그램 제공

사상사고를 목격한 기관사 및 역무원을 위해 정신과 진료를 지속 제공한다. 사고 발생 후, 해당 근무자들은 잠시의 휴가로 안정을 찾고, 상태 호전에 따라 정신과 진료를 진행한다. 치료 후에는 그 상태나 요구에 따라 직무를 변경하기도 한다. 이외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면담을 따로 시행해 심리가 불안정한 사람을 발굴하기도 한다.



● 무선 DMB CCTV 유선으로 전환

최신 DMB 시스템이 오히려 승강장 현시에 독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유선으로 변경했다. 무선의 경우 반복적인 수신 지연으로 정확한 상황 판단에 장애가 되기도 하는 것. 유선으로 시차 없이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고, 또한 빛이나 시설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로 방향으로 모니터를 배치해 기관사의 시야를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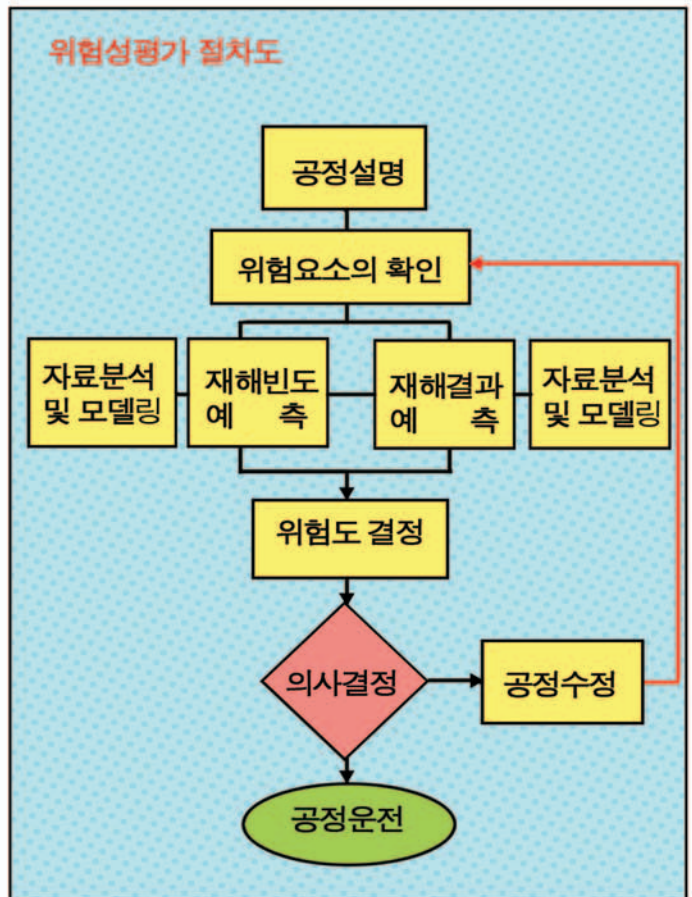
● 위험예지카드로 안전교육

기관사의 경우 1인 업무 체제이기 때문에 위험 사항과 사고사례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매일 운행 투입 전 위험예지훈련을 시행하며, 사고사례는 물론 사고예측상황 등의 사진과 정보를 담은 카드를 제작해 100% 숙지하고, 그날의 속도변화 구간, 작업구간 등을 완벽 체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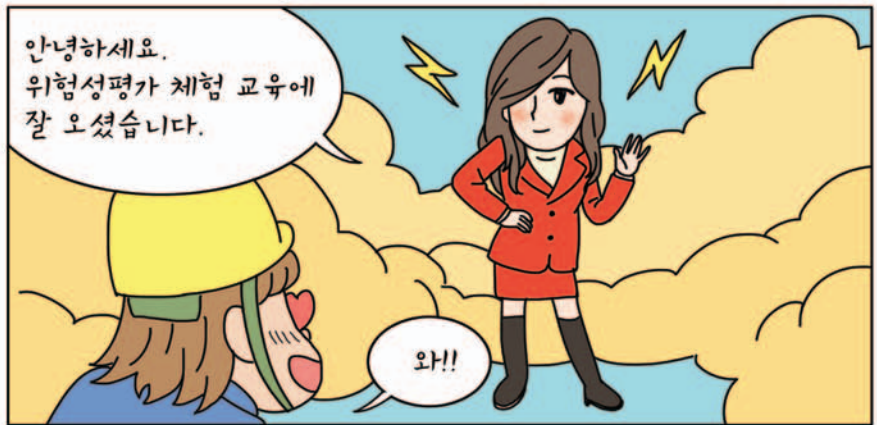
바람의 작업자

연재만화 24

공정안전 ②







그럼 먼저 정성적평가
기법 중 "체크리스트 기법" 과
"사고예상질문 기법" 을 체험해 볼게요

체크리스트 기법은
오류, 결함상태, 위험 상황 등을
목록으로 작성해 확인하면서 위험을
파악하는 안전성평가 기법을 말해요.

위험요소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만들어서
관리하면 좋아요!

사고예상 질문 기법은
공정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상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
벌어질 위험과 결과를 생각하고
위험을 줄일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거예요
"만약 A 대신 B 밸브를 열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열어보면
알잖아요?

안돼!!

으음!!
으아~!

계속 ...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중대재해 속보가 실시간으로 내손에!

‘위기탈출 사고포착’ 어플리케이션

“앗 내 주변에서 이런 사고가!! 위기탈출이 필요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국 각지의 산업사고 속보!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업종별 재해사례까지!!

안전보건활동의 필수 어플리케이션 ‘위기탈출 사고포착’

현장정보로 내 주변의 사건사고를 직접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위기탈출
사고포착



안전보건공단

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STEP1 앱스토어(아이폰) 또는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폰)에 접속하여 ‘사고포착’,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등으로 검색

STEP2 ‘위기탈출 사고포착’ 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STEP3 다운로드 완료 후 바로 열기를 누르거나 바탕화면(또는 메인메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② 다운로드 받고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하나! 경품행사에 응모하기

메인 화면에서 ‘앱 평가하기 이벤트’ 를 눌러 설문조사에 응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16GB, Wifi)

둘! 사고현장 제보하기

사고현장을 제보해 주세요. 매달 제보자 중 25명을 선정해 식사쿠폰, 간식 쿠폰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드립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행복 발전소

Happiness

44 근로자 건강증진 인증 사업장 48 생활안전 플러스 50 건강 365 52 함께 배우는 스트레칭
54 Theme Keyword 56 Theme Touch 58 Theme Plus



건강을 정비한다 행복을 업그레이드한다



한국GM 대전서비스센터

1990년 설립 후, 한국GM 고객에게 정확한 정비와 완벽한 서비스를 지속해온 한국GM 대전서비스센터. 보다 튼튼한 차량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직한 열정만큼 차량 서비스의 접점에 놓인 근로자의 건강증진에도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80여 명의 근로자들은 매일 건강한 신체와 정신으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담배는 막고, 염분은 빼고, 운동은 더하고

근로자 건강이 곧 현장 안전의 바탕이 됨을 알기에 건강증진과 안전의지를 동시에 키워온 한국 GM 대전서비스센터는 건강증진활동 인증 사업장 외에도 무재해 6배수라는 뛰어난 안전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건강관리가 곧 안전관리라는 생각으로 타 업체보다 앞서 건강증진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해왔다. 의무실 명나연 간호사가 한국GM 대전서비스센터의 건강의지를 이야기한다. “건강증진활동으로 근로자의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긍정적 마인드까지 증진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건강증진활동으로 질병 및 사고 없이 밝은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할 때 가정의 행복과 회사의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한국GM 대전 서비스센터는 평균 연령이 50살 정도로 고령 근로자가 많은 만큼 뇌심혈관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더욱 힘을 쏟는다. 뇌심혈관 질환 예방 활동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금연클리닉이다. 2006년 4월부터 사업장 전면 금연을 선포하고, 2009년부터는 관내 보건소와 연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왔다. 체내 일산화탄소 수치 측정, 일대일 면담, 금연 패치나 금연 껌·사탕 전달 등으로 꾸준히 근로자의 금연을 도왔으며, 현재 2009년 대비 41%의 금연 성공률을 확보했다. 보건소와의 연계 외에도 자체적인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의지를 더했다.

철저한 계산 하에 제공되는 식단 역시 뇌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 현재 일주일에 이들은 현미밥을, 그 외 나머지 요일에는 잡곡밥을 제공한다. 뇌심혈관계 대표 질환인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함인데, 반찬은 염도가 낮은 채소 위주로 준비하고 따로 염도계를 구비해 국이나 찌개의 염도를 매번 체크한다. 또한, 배식 시마다 그날 식단에 대한 염도 정보를 표시해 근로자와 공유하고 있으며, 후식 역시 과일이나 견과류 등 건강식으로만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센터장, 간호사, 영양사, 근로자 대표로 구성하는 ‘메뉴위원회’가 건강식단에 대해 수시로 고민하며 개선점을 발굴한다. 앞으로 간식 역시 빵과 우유 대신 신토볼이 간식인 떡과 두유로 대체할 예정이다. 건강식단에 대한 고민은 식후 관리로 이어진다. 식사 후, 간호사가 현장을 순회하며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혈당을 체크한다. 고령 근무자가 많은 만큼 자칫 관리에 소홀하면 건강에 바로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기에 바쁜 근로자를 대신에 직접 찾아가 관리해주는 것이다. 뇌심혈관 질환 예방에 운동이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1인 1운동 하기’라는 모토 하에 점심 혹은 퇴근 후, 근로자는 삼삼오오 운동을 시작한다. 헬스는 기본이고, 당구를 비롯해 탁구, 배드민턴, 족구 등 잠시 동안 현장은 체육관으로 변신한다.

스트레칭, 생활의 기본 습관으로 정착

몸을 많이 써야 하는 자동차 정비 근로자들에게 근골격계 질환 예방은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GM 대전서비스센터는 특히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 기초가 되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나의 현장 문화로 정착시켜왔다. 매년 스트레칭 관련 교육을 구체화하고 그 교육 방식 또한 업그레이드한다. 2006년도에는 수차례 스트레칭 집체 교육을 시행했고, 2007년에는 신체 부위별과 작업별로 특성에 맞춰 스트레칭 교육을 진행했다. 2008년에는 사무직 종사자를 위한 스트레칭을 교육하고, 2010년



부터는 아예 스트레칭 교안을 제작해 현장 배포를 시작했다.
 주목할 부분은 2011년부터 시행한 '컴퓨터 실행용 스트레칭 프로그램'의 적용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스트레칭 동영상 프로그램을 개인 컴퓨터에 다운 받은 후, 한 시간 혹은 두 시간 단위로 실행을 설정한다. 설정된 시간 단위로 영상은 자동 실행되고, 업무를 보다가도 모니터에 영상이 뜨면, 근로자들은 영상을 따라 바로 스트레칭을 시작한다. 많게는 하루에 8차례씩 실행되다 보니, 이제 스트레칭을 근로자들의 생활 습관이 되었다.
 이외에도 아침마다 음악에 맞춰 집단 체조를 실시한다. 업무 시작 전, 추위에 절로 움츠러든 근육을 가뿐하게 풀어줌으로써 상쾌한 하루를 유지한다. 향후 요가 및 기공 체조 등 신체에 무리가 되지 않는 종목을 추가 도입해 연령에 맞는 수준으로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근골격계 통증 호소자는 의무실에서 수시로 물리치료를 받는다. 작년에는 4주간 전문 물리치료사가 방문해 집중적으로 수기치료를 하기도 했다. 그 만족도와 효과가 높아 내년에도 추가로 수기치료를 진행할 계획이다.



확고한 동기부여로 건강 증진의지 확보

한국GM 대전서비스센터는 총체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의 도움을 받아 정밀체력측정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하기도 했다.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 지구력, 악력, 순발력을 기본 측정 요소로 개인별 체력 상태를 점검하고, 연령 대비 체력 등급을 구분했다.

3년간 집중 시행한 결과, 비만자와 저체력자는 50%가량 감소한 반면, 우수체력자는 상당수 증가했다. 그 효과로 자전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급격히 증가했다 하니, 정밀체력측정이 근로자 건강의지 확보에 좋은 동기부여가 되어준 셈이다. 이렇듯 동기부여가 충분할 때 개인은 스스로 의지를 더할 수 있는 법. 강용훈 센터장이 동기부여를 통한 건강증진활동을 강조한다.

“개인의 건강의지가 바로 섰을 때 근로자는 건강증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보건관리자만의 노력과 설득만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개개인의 의지를 높이기 위해 모든 건강증진사업 시작 전, 집체교육과 직별교육을 따로 시행합니다. 건강증진사업의 장점을 자세히 전파하고 설문조사나 테스트를 통해 근로자의 요구도 판단합니다. 보건관리자는 금연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근로자들은 절주나 근골격계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처럼 근로자와 소통하고 조율하며 건강증진활동을 진행합니다.”

근로자 건강증진의 요새 역할을 담당하는 의무실의 활동도 강화했다. 고지혈증, 고혈압, 간장 질환, 당뇨 등의 일반 질환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의약품 복용이나 식이요법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다. 성인질환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일반검진 외에도 사후검진을 추가로 시행해 수치 변화를 체크하고 밀착 면담으로 관리를 지속한다.

한국GM 대전서비스센터는 고객에게도 건강증진에의 열정을 나누고 있다. 작년까지 접수처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을 측정해주고 다양한 건강 관련 상담을 동시 진행한다. 고객은 말끔한 차량 정비는 물론 건강점검까지 덤으로 받아가게 되는 것. 현재는 고객을 위한 혈압측정기를 따로 비치해 두었다. 이처럼 근로자의 건강을 넘어 고객 건강까지 고민하는 한국GM 대전서비스센터는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건강증진활동으로 현장의 건강은 물론 세상의 행복까지 지향하고자 한다. 🌱



한국GM 대전서비스센터의 건강한 일터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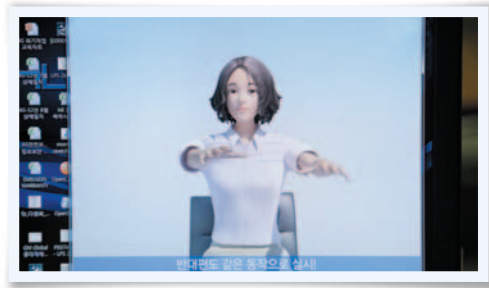
① 건강식단을 연구하는 '메뉴위원회'

센터장을 비롯해 영양사와 간호사, 그리고 근로자 대표들이 모여 건강식단을 고민한다. 체지방 분해에 좋은 반찬,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곡물 등 필수 건강식을 제안하고, 메뉴의 염도와 영양 성분을 검토해 점심시간마다 근로자와 공유한다.



② 정컴퓨터 실행용 스트레칭 프로그램 적용

근골격계 질환 예방은 스트레칭이 해답.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스트레칭 동영상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다운받은 후, 한 시간 혹은 두 시간 단위로 자동 실행시킨다. 업무에 몰두하다가도 매시간 자동 실행하는 영상을 따라 목을 풀고 어깨를 돌린다. 많게는 하루에 8차례씩, 스트레칭을 좋은 습관으로 정착시켰다.



③ 고객과 건강 열정 공유

한국GM 대전서비스센터의 건강증진활동은 고객의 건강증진을 포함한다. 작년까지 접수처에서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을 측정하고 수치를 바탕으로 무료상담을 진행했다. 현재는 접수처 리모델링으로 고객용 혈압측정기를 비치해둔 상태다.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전은 '트리플 보기'

비상 대피시설 · 타석 공간 · 실내 밝기 미흡

골프연습장 안전사고 위험 높아

스크린 골프연습장 상당수가 비상대피 시설이 미흡하며, 타석 주변 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실내가 어두워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연습장의 안전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지역 소재 스크린 골프연습장 20곳을 현장 조사하고 이용경험자 120명을 설문 조사했다. 그 결과, 20개 스크린 골프연습장 가운데 4곳은 비상구가 잠겨 있고 15곳은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없거나 작동되지 않았다.

7곳은 타석 주변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골프채로 천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타석 주변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 자체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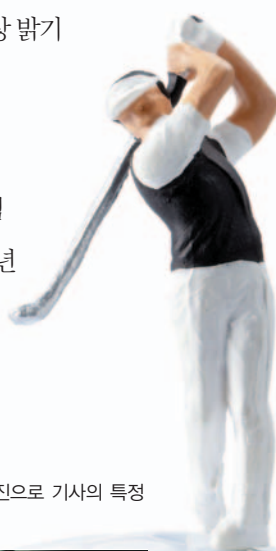
실내가 어두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내 조도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영화관의 밝기와 유사한 평균 7.7lx(럭스)로 측정됐는데, 좁은 공간에서 빈번하게 움직이는 스크린 골프 특성상 밝기 개선이 필요하다.

골프 관련 위해사례 매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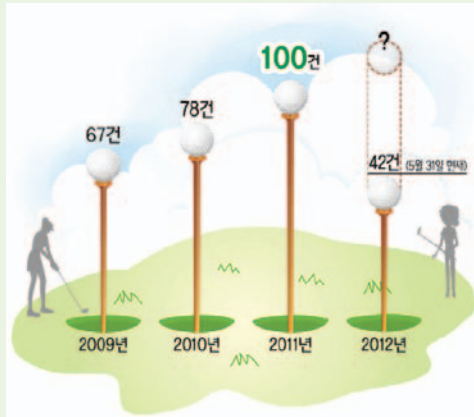
2009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3년 5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실내 골프연습장 관련 위해사례가 287건 접수됐다. 2009년 67건, 2010년 78건, 2011년 100건이 접수돼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사진은 모 업체의 홍보용 사진으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습니다)



골프 관련 위해사례 접수 현황



※ 실내골프연습장 : 일반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포함

① 휴대용 비상조명등 없거나 작동 안 돼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어 소방 관련 규제를 받고 있으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였다. 조사대상 20곳 중 15곳이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거나(2곳) 설치했더라도 작동되지 않는(13곳) 것으로 드러나 재난 시 피난에 어려움이 우려됐다.

피난안내도가 부정확하거나 비치되지 않은 곳이 6곳, 비상구가 잠겨 있거나(4곳) 비상구 앞에 물건이 적치된 곳(2곳)도 있어, 위급 상황 시 탈출이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② 골프채로 인한 천장 손상

실내 골프는 타석에서 골프채를 휘두를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석 간 간격뿐 아니라 이용자가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기타 설비가 부딪치지 않도록 타석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각 타석이 개별 실로 구분되는 등 일반 실내 골프연습장과 형태가 달라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별도의 안전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구체적인 시설 기준이 없다 보니, 타석과 대기석, 타석과 스크린 천의 거리, 천장 높이 등이 업소마다 달랐다. 특히 타석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최저 2.6m에서 최고 4.5m로 편차가 컸으며, 7곳에서는 골프채로 인해 천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③ 실내조명 어두워 안전사고 우려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조명이 위치한 타석과 대기석 두 지점의 조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7.7lx(럭스)로 나타났다. 영화가 상영 중인 영화관과 비슷한 밝기이다.

좁은 공간에서 이용자의 움직임이 많은 스크린 골프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된다. 영화관 역시 관객 이동 중에는 훨씬 높은 조도기준을 적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스크린 골프연습장 역시 관객 이동 시의 영화관 조도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연습장에서 음주·흡연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이용경험자 12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골프연습장 내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응답이 59.2%(71명)나 됐다. 실내 흡연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5.8%(67명)에 달했다.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중 30%(36명)만이 사전 운동을 하며, 70.8%(85명)는 이용 전 주의사항 등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용하다가 골프공에 위협을 느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53.3%(64명), 골프채에 위협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2.5%(51명)였다. ❀

실내 골프장 이용자 주의 사항

- 충분한 준비 운동을 통해 부상을 예방한다.
- 음주 후 이용을 자제하고 골프연습장 내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
- 실내 흡연은 본인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자제하고 흡연실을 이용한다.
- 실내가 어두우므로 타인의 움직임 및 골프채, 골프공에 각별히 유의한다.
- 다른 사람이 타석에서 있을 때는 타석을 주시하고 주변 설비에 공이 맞고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 다른 사람이 예상치 못한 궤도로 스윙을 할 수도 있으므로 골프공을 쫓거나 이동할 때 주의를 기울인다.
- 비상 시 피난을 위하여 휴대용 비상조명등 및 피난 안내도 등을 확인한다.
- 연습장 내 안전사고를 대비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된 연습장을 이용한다.

귀족병 ‘통풍’ 주의보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은 나이 든 남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병이지만, 최근에는 30~40대 남성을 중심으로 통풍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주로 왕족이나 귀족 등 지배계급에서 많이 발병해 ‘귀족병’이라 불리는 통풍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귀족병’

통풍은 한자로 이플 통, 바람 풍자를 쓴다. 말 그대로 바람만 스쳐도 아플 정도로 통풍의 통증은 심하다. 통풍은 요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과다하게 쌓이면서 생기는 것으로, 바늘처럼 생긴 요산이 덩어리 형태로 뭉치고 관절에 쌓이면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체내 요산 수치는 퓨린(purine, 음식으로 섭취하면 몸에서 분해돼 요산으로 바뀐다) 함유량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높아진다. 기름진 음식이 퓨린 함유량이 많은 경우가 많아 흔히 ‘귀족병’ 혹은 ‘왕의

병’이라 불린다.

통풍은 40대에서 60대 남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병이지만, 최근에는 30대~40대 초반 남성에게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통풍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6만 6,000여 명으로 5년 전보다 35%나 급증했다. 10명 중 9명이 남성 환자로, 30대부터 50대 남성 환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대인의 식습관이 점점 서구화되면서 혈중 요산 농도가 높아져 통풍 발생 연령대도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방치하면 생명까지 위험

발병은 대부분 급성으로 시작하며, 관절 부근이 뜨거워지고 붉게 변하며 열이 나고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처음에는 발가락이나 발목 등에 잘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무릎과 손가락, 심하면 피부 밑에 요산 덩어리가 만져지는 통풍결절을 형성하기도 한다.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붓는 증상 때문에 관절염이나 봉와직염으로 착각할 수 있다.

처음 통풍 증세가 나타나면 참기 힘든 통증에 병원을 찾지만 통증이 좀 가라앉으면 방치하기 십상이다. 통풍이 한번 생기면 해가 갈수록 통풍이 발생하는 횟수가 늘어나며 오래 방치할수록 여러 관절에 심한 증상이 발생한다. 더 진행되면 만성으로 변하며, 관절 부근에 불룩 튀어나온 모양의 덩어리가 생기면서 통증이 지속된다. 통풍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만약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관절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으며, 성인병은 물론이고 뇌졸중까지 부를 수 있는 위험한 병이다.

퓨린 성분 많은 술과 고기 멀리해야

통풍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잦은 음주와 육류 과다 섭취이다. 붉은색 육류나 해산물을 많이 섭취하면 통풍 발생률이 30% 이상 높아지며 비만이나 과음, 과도한 운동 또한 요산 생성률을 올릴 수 있다. 특히 맥주의 퓨린 함량이 굉장히 높아 맥주나 치킨 같은 것들을 같이 먹게 되면 요산의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 또 곱창이나 간 등 고기 내장과 멸치, 조개, 마른오징어, 돼지고기나 오리고기 같은 육류, 고등어와 대구, 연어 그리고 콩나물에 퓨린이 많다. 반대로 곡류와 달걀, 고구마, 옥수수, 우유, 다시마 등에는 퓨린이 거의 없다. 때문에 평소에 퓨린이 많은 식품 섭취를 줄이고 되도록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통풍 발작은 대부분 약물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통풍에서 회복되더라도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는 맥주와 육류 내장 등은 피해야 한다. 비만일 경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통풍에 도움이 되지만 관절에 무리를 주는 과격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

퓨린은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이용한 조리법을 사용하면 퓨린의 섭취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다. 특히 국물에 퓨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물 요리는 될 수 있으면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게 좋다. 또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셔주면 몸속 요산 배출을 돕는다. 🌸

Tip

통풍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통풍에 좋은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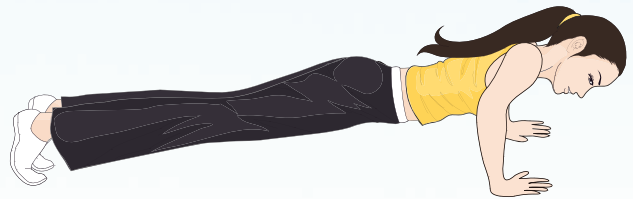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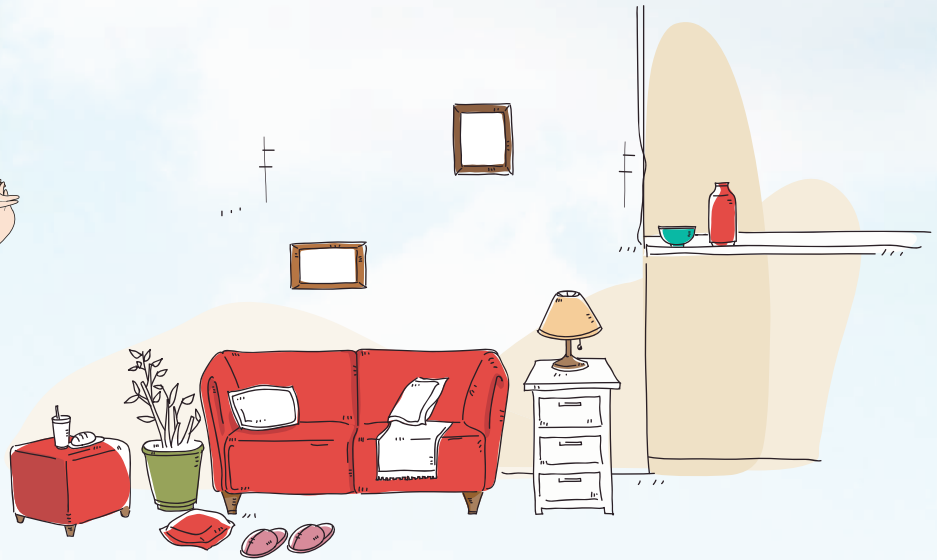
- **양배추** : 양배추는 산성의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바꾸어서 요산이 잘 배출되도록 한다. 양배추를 자주 먹으면 혈중의 요산 농도가 낮아져서 통풍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 **메밀** : 메밀의 잎, 꽃, 열매에는 이뇨를 촉진시켜 요산의 배출을 도와주고 신진대사를 좋게 한다. 또한, 소염 효과도 있어서 통풍에 좋은 효과가 있다.
- **초란** : 초란은 요산염을 분해, 배출시켜주며 칼슘도 풍부하다. 그러므로 초란을 섭취하면 통풍도 개선되고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다.
- **옥수수수염** :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 옥수수수염도 통풍에 좋은 음식이다. 체내의 수분대사가 잘 되게 하고 요산의 체외 배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 **알로에** : 알로에의 사토닌 성분이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소염 작용을 해서 통풍을 개선시켜 준다. 또한, 면역력을 높여주고 손상된 관절 세포의 회복을 도와준다.

<통풍에 나쁜 음식>

- **어류** : 100g당 퓨린 함량이 100mg 이상인 음식은 통풍을 악화시킨다. 마른오징어, 청어, 고등어, 참치, 멸치, 삼치, 젓갈, 생선알 등은 통풍이 있을 때는 삼가야 한다.
- **육류** : 동물의 간, 내장, 곱창, 지라, 콩팥, 염통 등은 통풍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이 외에도 베이컨, 머리고기, 불고기 등과 육수, 고기국물 등도 좋지 않다.
- **표고버섯** : 말린 표고버섯 100g에는 퓨린성분이 75~100mg 정도나 들어 있어서 요산의 생성을 촉진한다. 그러므로 통풍치료 시에는 표고버섯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 **술** : 통풍 환자들의 식이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술이다. 맥주가 퓨린 함량이 제일 높고 와인, 위스키, 소주 순으로 낮다. 하지만 술 자체가 체내 요산 농도를 급격하게 올리고, 요산 배출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때문에 꼭 마셔야 한다면 퓨린 함량이 적은 술을 조금만 마셔야 한다.

실내에서 하는 스트레칭

겨울이 되면 더욱 신나 하며 겨울을 온몸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운동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사람들도 있다. 스키장에서는 보드나 스키를 타기 전에 당연히 준비운동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집에서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함으로써 근육이 줄어들 것을 예방해야 한다.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평상시와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피로감이 높게 나타나며 쉽게 다칠 수 있다. 때문에 실내에서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과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해 실시하는 것이 좋다. 어깨 스트레칭을 중심으로 겨울을 더욱 건강하게 나기 위한 실내 스트레칭을 배워보자. 🌸



1 전신 스트레칭

- ① 두 다리를 어깨너비로 안정적으로 벌려준다
- ② 두 손을 깎지 낀 후 머리 위에서 쪽 퍼준다.
- ③ ②번의 자세에서 옆으로 내린 후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 ④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어깨 근력운동

- ① 팔을 바닥에 두고 온몸을 쪽 펴고 엎드린다.
- ② 양팔로 상체를 지탱하면서, 천천히 팔을 굽혔다 펴는다.
- ③ ②번의 자세를 반복 실시한다.
- ④ 팔의 근력이 부족한 경우 무릎을 대고 실시한다.



3 어깨 스트레칭

- ① 두 다리를 어깨너비로 안정적으로 벌려준다
- ② 두 손을 등 뒤에서 깍지 끼고 천천히 올려준다.
- ③ ②번의 자세에서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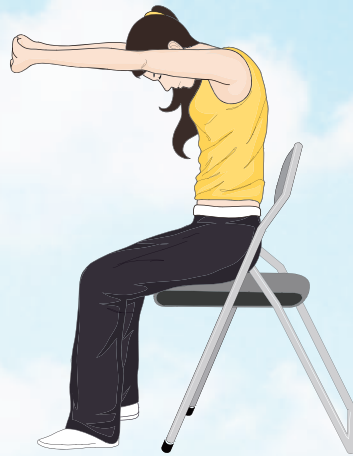


4 어깨 근력운동

- ① 아령이나, 밴드를 한 손에 들고 선다.
- ② 중량물의 무게를 어깨로 느끼면서 천천히 옆으로 들어준다.
- ③ ②번의 자세를 반복 실시한다.
- ④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5 어깨 스트레칭

- ① 두 손을 깍지 끼고 앞으로 뻗는다.
- ② 등을 둥글게 말고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팔을 정면으로 최대한 뻗어준다.
- ③ ②번의 자세에서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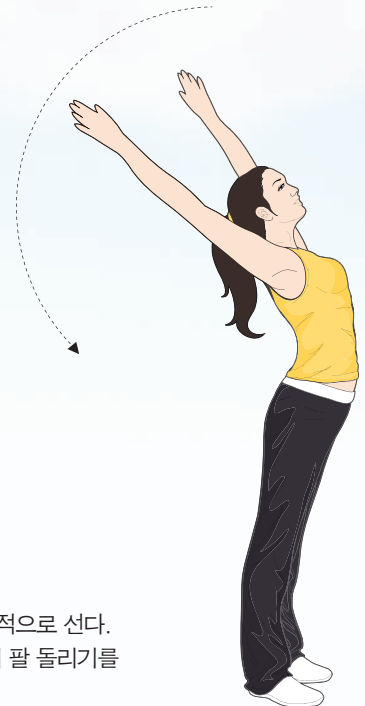
7 어깨 스트레칭

- ① 한 손을 머리 뒤로 넘겨 팔꿈치를 잡아 준다.
- ② ①번의 자세에서 고개를 들고, 반대 손으로 팔꿈치를 당겨 준다.
- ③ ②번의 자세에서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 ④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6 어깨 근력운동

- ① 두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균형을 잡아준다.
- ② 한 손은 무릎을 잡고,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한쪽 팔을 뒤로 들어 준다.
- ③ ②번의 자세에서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 ④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8 어깨 돌리기

- ① 두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안정적으로 선다.
- ② ①번의 자세에서 두 팔을 크게 벌려 팔 돌리기를 실시한다.

Theme Keyword



■기록(記錄)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글.



삶은 기록한 만큼 기억된다.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다.

10분이 지나면 기억을 잃는 주인공은 아내의 살해범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10분으로 제한된 기억을 연장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고, 자신의 신체 거의 모든 부분에 필사적으로 기록한다. 하지만 결국 한계가 오게 되고 그 틈을 비집고 사실의 왜곡이 이뤄진다. 그럼에도 기억상실에 걸린 주인공은 계속 기록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처럼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으며, 왜곡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억하기 위해 기록한다. 물론 문자로 된 기록 자체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믿가를 주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당연히 기록에 담긴 삶일 것이다.

사람의 삶은 시간이 가면서 변한다. 그것을 역사는 기록으로 남기고, 정리하고, 알려 준다. 그러나 그 변화는 늘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나타나고 또 발견된다. 하찮게 보이는 편지 한 장, 메모 하나가 그 삶을 전해 준다.

역사는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하다. 하루하루가 만들어지는 리듬이 곧 역사이며, 그것은 기록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기록은 잘못된 일을 성찰하게 하여 삶을 깊이 있게 해 주고, 잘한 일은 흐뭇하게 떠올리게 하여 삶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한다.

2012년 올 한해 기쁜 기록도 있고, 슬픈 기록도 있고, 마음 아픈 기록도 있을 것이다. 그 기록들을 되돌아보며 내년 한 해 우리 인생이 혹은 우리의 역사가 좀 더 행복한 기록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기록으로 보는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은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록은 과거의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기록들을 살펴보자.



1. 훈민정음

훈민정음은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있으며 '훈민정음예의본'과 '훈민정음해례본'이 있다. 이중 '훈민정음해례본'은 1446년 음력 9월에 간행된 1책의 목판본으로, 새로 만든 문자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이 문자의 음가 및 운용법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해설과 용례를 붙인 책이다.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조의 시조인 태조로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1392~1863)의 역사적 사실을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오래되고 방대한 양의 역사서이다. 1413년(태종 13년)에 <태조실록>이 처음 편찬되고, 25대 <철종실록>은 1865년(고종 2년)에 완성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총 2,077책이 일괄적으로 1973년 12월 31일 국보 제 151호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3. 직지심체요절

백운화상(법명 경한)이 75세였던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노안을 무릅쓰고 부처와 조사(祖師)의 계승, 법어 등에서 선의 요체를 깨닫는 데 필요한 내용을 뽑아 엮은 책이다. 정식 서명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나, 주로 <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심경(直指心經)> 등으로 관용되고 있다. 이 책은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하권만이 유일하게 프랑스에 소장되어 있으며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4.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에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승정원에서 매일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일기이다. 조선왕조 최대의 기밀 기록인 동시에 사료적 가치에 있어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자랑할 만한 자료이다. 원본 1부밖에 없는 귀중한 자료로 총 3,243책의 기록이 남아 있다. 1999년 4월 9일 국보 303호로 지정되었으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5. 조선왕조의 의궤

의궤는 조선시대 600여년에 걸쳐 왕실의 주요 행사와 건축물 조성 그리고 왕실문화활동 등에 대한 기록이 그림으로 남아 있어, 600여년의 생활상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총 3,895 여권의 방대한 분량이며 왕실의 주요한 의식이 시기별·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조선왕조 의식의 변화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를 비교·연구하는 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7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6.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고려대장경판은 81,258 목판에 새긴 대장경판으로 아시아 전역에서는 유일하게 완벽한 형태로 현존하는 판본자료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확하며, 가장 완벽한 불교 대장경판으로 산스크리트어에서 한역된 불교대장경의 원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려대장경의 학술적 내용 및 품질 관리에 투입된 심오한 노력은 오늘날과 비교해도 놀라운 수준이다. 2007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7. 동의보감

보물 제1085호인 동의보감은 선조 30년(1597)에 어의 허준 선생이 선조의 명을 받아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학 서적을 하나로 모아 편집에 착수해 광해군 3년(1611)에 완성한 의학 서적이다. 총 25권 25책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소장 중이다. 중세 동아시아 의학을 집대성한 뒤 현재까지 동양의학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한방의서로 인정받고 있다. 2009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8. 5.18 민주화운동기록물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대한민국 광주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일련의 활동과 이후에 이 사건의 책임자처벌,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기록되고 생산된 문건·사진·영상 등의 자료를 총칭한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화에 큰 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민주화를 이루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져 왔다. 2011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9. 일성록

일성록은 1760년(영조 36)에서 1910년(융희 4)까지 151년 동안의 국정 운영 내용을 매일매일 일기체로 정리한 국왕의 일기이다. 임금의 입장에서 펴낸 일기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물이다. 필사본으로 한 질만 편찬된 유일본이며 총 2,329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보 제153호이며 조선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 기록물을 넘어서는 세계사적 중요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2011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기록에 대한 다양한 기록



모든 기록물과 기록이 생산되는 과정은 그 사회상을 반영한다. 따라서 어떠한 사회를 알고자 할 때 그 사회가 생산해낸 기록물을 살펴보고 그 기록물이 생성된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록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들을 소개한다.

구술 기록과 문자 기록

잉카 사람들은 입으로 전했을 때 내용이 바뀌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공인 역사가'를 두고, 이들에게 엄청난 양의 정보를 기억하게 하여 그 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말하게 했다. 이 공인 역사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대물림되기 쉬웠다. 아무래도 늘 가까이 있으면서 얘기해 주기에는 가족이 편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낭만과 즐거움을 주는 놀이이자, 옛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상상력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렇게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를 모아 둔 곳이 있다. 한국 중앙연구원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http://yoksa.aks.ac.kr>)이다. 지역과 주제별로 이야기를 분류해 디지털 문서로 만들어 두었다. 구전되던 이야기를 디지털 매체에 수록했으니 이제 문자 기록이 된 셈이다.



다른 나라로 가 버린 기록

한국전쟁 중에 미국이 자료들을 가져간 까닭에 이 시기의 기록들을 보려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그 기록 중 일부는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다. NARA의 검색 시스템인 'ARC(Archival Research Catalog)'가 그것이다. 이 시스템을 검색하면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어 한국 현대사 역사 공부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몇몇 검색어를 통해 들어가면, 관련 자료들이 굵비 엮이듯이 나올 것이다.

기록학과 연구 기관

개인이든 기관이든 활동을 하다 보면 문서가 나온다. 그 문서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이론이나 방법론을 '기록학'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국제기록평의회(ICA) 홈페이지나 몇몇 단체나 학회를 찾아가면, 더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고 삶의 지평도 넓힐 수 있다.

- **국제기록평의회 ICA**(www.ica.org) : 산하에 지역 기구, 연구 기구를 두고 있고, 유네스코 등과 협력하여 세계의 기록 문화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 **한국기록학회**(www.ksas1.org), **한국기록관리학회**(www.ras.or.kr) : 우리나라의 기록 관련 학회
- **한국구가기록연구원**(www.rikar.org) : 우리나라의 민관연구기관
-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 : 행정안전부 산하의 정부기관
- **국가기록유산**(<http://memorykorea.go.kr>) :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다른 나라의 국가기록유산도 찾아볼 수 있다.
-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조선왕조실록 원문과 번역문을 왕조와 날짜별로 검색할 수 있다.

기록과 관련된 직업

· **아키비스트** 기록관리 전문가인 아키비스트는 매일 생산되는 엄청난 분량의 기록물 더미에서 영구기록으로 보존한 것을 추려내고, 그 내용을 목록에 요약해 국민이 원할 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한다. 아키비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학 석사과정을 마쳐야 한다. 한문으로 된 문서를 자주 접하므로 한자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하며 정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분석을 위해 다방면에 걸친 수준 높은 교양은 필수적이다. 기록에 대한 중요성과 전문적인 기록 및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아키비스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스포츠 기록분석원** 스포츠 기록분석원은 각종 스포츠 경기의 모든 상황을 수치 데이터로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다. 육상, 수영 등의 개인 종목을 포함해 축구, 야구 등 단체 종목에서 나오는 모든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상대 팀이나 선수의 기록과 전략을 파악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스포츠 기록분석원이 되기 위해서는 스포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경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있어 경기분석이 점점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기록분석원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 **속기사** 기호속기문자를 써서 회의나 좌담회 등의 구술 내용을 받아 적는 사람이다. 속기는 보통 문장의 10배 정도의 속도로 쓰는데, 국회의 의사록, 법원의 공판기록, 각종 회의, 매스커뮤니케이션 관계의 뉴스취재 등 이용 범위가 넓다. 속기사의 자격인정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다. 🌱



산업재해는
예외카드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됩니다

서비스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 ① 작업장 바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 ② 추락위험장소 또는 개구부에 안전난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③ 기계·기구 및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④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⑤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



안전보건 에너지 Energy

62 건설업 중대재해사례 64 제조업 중대재해사례
66 서비스업 중대재해사례 68 안전보건 포커스 I
72 안전보건 포커스 II 76 지구촌 안전보건
78 KOSHA 뉴스 80 안전인증 취소현황
82 KOSHA Info & 독자퀴즈

신호수와 운전기사의 어긋난 신호

후진 중인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운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시시켜야 한다. 이번 사례처럼 제대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대재해로 이어지게 된다.

덤프트럭 신호 중 후진하는 덤프트럭에 부딪혀

“자, 뒤로 천천히 오세요.”

지난해 12월, 경남 거제시의 골프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는 김씨는 매서운 겨울바람을 이겨내며 트럭 운전사에게 연신 신호를 보냈다.

이곳 현장은 골프장 18홀 조성공사로, 절토된 흙을 백호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실은 뒤 운반 및 성토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신호수인 김씨는 흙의 하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덤프트럭을 유도하는 일을 진행했다.

오후 1시경, 덤프트럭 기사 박씨는 골프장 1홀에서 토사를 싣고 운반거리 500~600m에 떨어진 골프장 12홀 흙을 하차하기 위해 김씨의 신호를 사이드미러로 보며 서서히 덤프트럭을 후진했다.

“어? 신호수가 갑자기 어디 갔지?”

운전기사 박씨는 신호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덤프트럭을 약 1m



정도 전진시켰다. 사이드미러에 신호수인 김씨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한 운전기사는 급히 119에 신고했지만, 김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운전기사가 후진 중에 신호수 주시하지 않아

사고 조사 결과,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후진 중에 사이드미러를 통해 신호수를 끝까지 주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운전기사의 진술에 따르면 신호수 김씨는 최초에 서 있던 지점(운전석 후방)에서 반대편(조수석 후방)으로 이동한 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때문에 신호작업 중인 김씨는 덤프트럭이 후진 중에 자신의 위치를 이동하다가 덤프트럭에 충돌되면서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사고발생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는 작성했지만, 덤프트럭 운전기사와 신호수에게 신호작업 등의 작업계획서 내용을 제대로 주시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트럭기사와의 신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김씨는 트럭에 치어 사망하고 만 것이다. ❀



1. 재해발생 현장전경
2. 사고당시 기인물 (덤프트럭 15톤)
3. 사고당시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 대한 근로자 교육 철저

사업주는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해 운반 작업을 할 때에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주시시켜야 한다.

<관련규정>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 대한 근로자 주시 미실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및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 관련)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전락(轉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제1호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해예방대책 법령정보 제공 최낙현 노무사(노무법인 노정)

폭발 위험성 상태에서의 작업

트랙터 연료통 수리 중 화재·폭발로 인해 사망

경유를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 연료통의 용접작업은 내부의 경유를 완전히 제거하고 폭발이나 화재예방 조치를 한 수해야 한다. 이번 사례 역시 충분한 안전교육이 이뤄졌다면 인화성 증기가 체류하고 있는 연료통에 용접 작업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트랙터 연료통 용접 작업 중 폭발

“차량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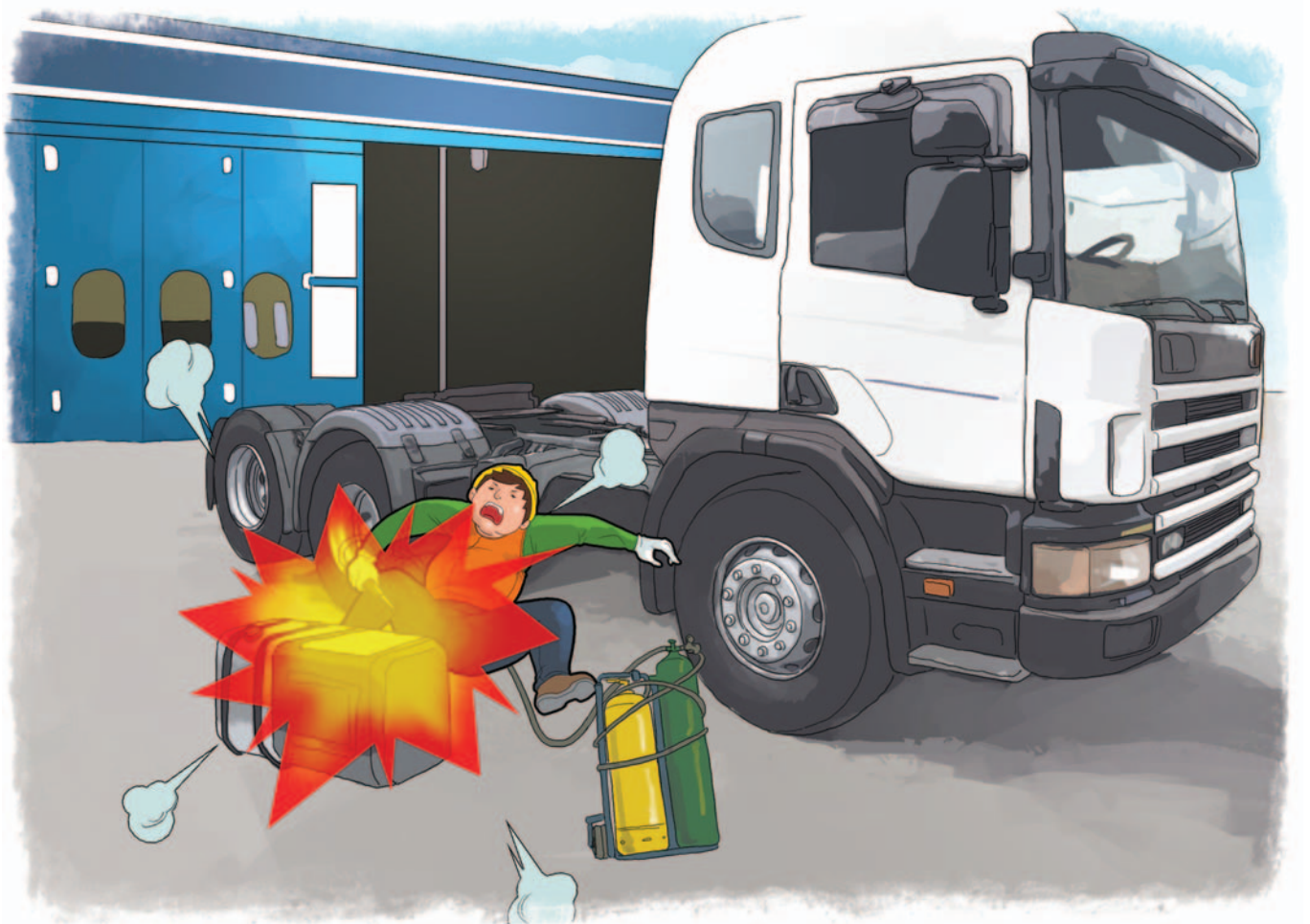
“연료통이 새는 것 같은데 한 번 봐주세요.”

“여기 연료통이 새네요. 용접해야겠네요.”

대구시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하는 정씨는 25톤 트랙터의 연료통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트랙터 연료통을 차량에서 분리해 경유를 비워 낸 후 산소-아세틸렌 용접기로 작업을 시작했다.

“으악~”

그러던 중 갑자기 ‘뽕’ 하는 소리와 함께 연료통에서 불꽃이 치솟아 올랐고, 정씨의 몸에 불이 붙었다. 사무실에서 현장으로 나가려던 관리부장이 이를 발견하고 주변의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화재진압 후 화상을 입고 쓰러진 정씨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치료 중 사망하고 말았다.



인화성 증기 발생한 상태에서 용접기 불꽃 접촉

조사 결과 정씨는 연료통에서 경유를 비워 낸 후 연료주입구 뚜껑을 닫지 않아 내부의 잔류경유에서 인화성 증기가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재해발생일의 기온 및 햇빛의 영향으로 연료통 내부의 온도는 40℃ 이상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해발생 후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트랙터 연료통 일부가 파열되어 있었으며, 주변에 보관 중이던 플라스틱 소재 경유통이 불탄 흔적도 있었다.

결국,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상승한 연료통 내부에 체류하는 인화성 증기에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산소-아세틸렌 용접기 불꽃이 접촉해 화재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



1. 트랙터
2. 트랙터 연료통
3. 사용한 용접기(산소-아세틸렌 용접기)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 자동차 연료통 수리(용접) 작업 시 안전조치 철저

경유를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 연료통의 용접작업은 내부의 경유를 완전히 제거하고 폭발이나 화재예방 조치(연료통 내부의 연료제거 후 질소를 채우는 등)를 한 후 실시해야 한다.

○ 연료통 교체작업 절차서 제정·준수

잔류연료 제거와 제거한 연료의 보관방법 및 점화원과의 거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료통 수리작업 절차서를 작성하고 교육을 실시해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조치한다.

<관련규정>

- 인화성 증기가 발생, 체류된 장소에서 안전조치 미실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0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그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제1호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뒤엉킨 목도리에 목 졸린 생명

난방기 모터 샤프트에 목도리가 감기며 질식사망

송풍기 모터와 V-벨트 덮개 사이의 노출된 회전축(샤프트) 부위에는 방호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 근로자의 신체나 의복 등이 접촉되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또 근로자 역시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 등을 착용해 기계에 말려들어 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보일러 온도 조절 중 목도리가 모터 샤프트에 감겨

“목도리가 아주 예쁘네요.”

“이거 어제 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준거예요. 이거 했더니 하나도 안 춥네요. 호호.”

“아드님이 정말 착하네요. 부럽습니다. 하하.”

지난 2011년, 전남의 한 유적관리업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김씨는 성탄절 아침에도 어김없이 출근해 관광안내 및 청사관리 업무를 준비했다.

“사무실이 좀 춥네. 보일러 켜야겠다.”

8시 10분경에 출근한 김씨는 사무실에 있다가 8시 50분경 난방보일러 전원을 켜기 위해 2층 보일러실로 올라갔다.

“김씨는 어디로 간 거야. 보일러실에 갔나? 헉, 이박요 김씨. 정신 좀 차려 봐요!”

9시 15분경 청사주변 청소작업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온 동료



작업자가 김씨를 찾다가, 2층 보일러실 송풍기 모터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응급구조를 시도했으나 사망하고 말았다.

모터 샤프트에 덮개 등 위험 방지조치 없어

재해 당시 김씨는 털실로 짠 목도리(약 190cm)를 착용한 상태였고, 발견 당시 목도리가 송풍기 모터 샤프트에 감긴 상태에서 모터 위에 얼굴을 댄 채 목이 졸려 있었다. 난방보일러는 평상시 24℃로 세팅되어 있었으나, 발견 당시 세팅 온도가 설정된 것으로 볼 때, 김씨는 온도를 세팅한 후 또는 세팅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송풍기 모터의 동력전달장치(V-벨트)에는 방호 덮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샤프트(약 5cm) 부분은 노출되어 있었다.

결국 김씨는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모터 상부로 허리를 숙이는 순간, 착용하고 있던 목도리의 끝 부분이 모터 샤프트에 감기면서 목을 압박해 질식사된 것으로 보인다. ❀



1. 보일러실 전기판넬에 취부된 보일러 스위치
2. 보일러 프레임 측면에 설치된 온도 조절기
3. 목도리가 감긴 부분(송풍기 모터와 V-벨트 사이의 회전축)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조치

송풍기 모터와 V-벨트 덮개 사이의 노출된 회전축 부위에 방호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 근로자의 신체, 의복 등이 접촉되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작업에 알맞은 작업복 착용

근로자가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 주변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머리카락 또는 의복 등이 기계에 말려들어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 등을 착용해야 한다.

<관련규정>

○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조치 등의 미흡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87조, 제9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및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작업모 등의 착용)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제1호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해예방대책 법령정보 제공

최낙현 노무사(노무법인 노정), 02-561-2871, www.ljlabor.com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재사용 가설기자재 등록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이하 '조선업') 현장에서 사용 중인 가설기자재는 비인증 제품이 많고 대부분 구조 안전성 검토 없이 사용되고 있어 안전성확보가 곤란하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가설기자재에 대해 안전인증 기준에 준하는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적합한 가설재에 대한 등록과 함께 재사용을 권장하기 위함이다.

● 추진배경

조선업에서 사용하는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10여종) 중 조립식 안전난간 및 통로용 작업발판(건설업 가설기자재와 달리 조선업에서만 사용)은 가설기자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증품 사용빈도가 낮다. 또 시스템비계는 2011년 3월 23일부터 안전인증을 시행하고 있어 인증품이 많지 않음에 따라 등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 대상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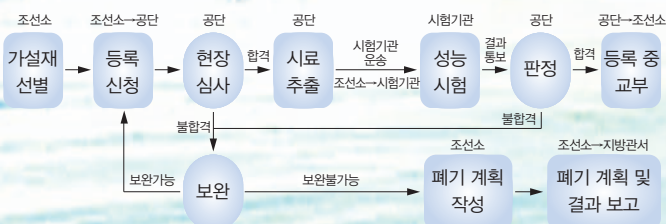
- 가설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선박블록 제작업체

● 대상품목

- 조립식 안전난간
- 통로용 작업발판
- 시스템 비계
- 해당업체에서 요청하는 품목 등

※ 1회용으로 사용하는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등은 제외

● 업무처리절차



1. 등록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도원에 등록신청 접수

○ 공단 업무담당부서

- 조선업재해예방팀 사업대상 조선소 : 부산지역본부 조선업재해예방팀
- 기타 조선소 : 안전보건공단 각 산하기관 안전인증담당 부서
- ※ 신청대상 사업장은 조선소를 기준으로 함

2. 현장심사 전 준비요청 사항

- 신청자가 미인증 · 재사용 가설기자재에 대해 고용노동부 「미인증 · 재사용 가설기자재 관리지침」 및 조선소의 가설기자재 관리 매뉴얼에 따라 상태별로 등급을 분류하여 현장심사 할 수 있도록 준비요청

3. 현장심사 기준 및 방법

○ 심사기준

가. 외관 및 구조 기준

아래 "품목별 외관 및 구조심사기준"에 따르며, 기타 품목은 가설기자재 인증기준 기준 적용

※ 안전난간의 꽃이용 난간기둥 하부 고정은 변선 고정 방식 허용

① 외관(전 품목 공통사항)

(a)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변형, 마모, 손상으로 수리, 보수, 사용이 불가능
- 부식에 의한 두께의 감소
- 용접부위의 균열 등
- 기능의 불량 등

② 구조

(단위: mm)

품목		부위		항목		기준	
통로용 작업발판		바닥재		틈간격		30 이하	
		발판		나비		200 이상	
		바닥판		미끄러짐방지		유	
조립식 안전난간		기둥		높이		900 이상	
		기둥(꽃이형)		꽃이부 길이		95 이상	
		바깥지름	기둥재	강관		Ø34 이상	
				각형강관		□30×30 이상	
				형강		40×40 이상	
		수평 난간대	수평 난간대	강관		Ø27.2 이상	
				각형강관		□25×25 이상	
형강				40×40 이상			
시스템 등 바리 및 비계용 부재	수직재	1종	수직재	바깥지름	원형	Ø60.2 이상	
				다각형	원형과 동등이상		
		2종	수직재	바깥지름	원형	Ø48.3 이상 Ø60.2 미만	
				다각형	원형과 동등이상		
		단부에서 핀구멍까지			간격		40 이상(일체형은 생략)
		수직재			길이		제작치수±1
	수직재 접합부	디스크형		두께		5.4 이상	
		포켓형		두께		3.0 이상	
	수평재	수평재	바깥지름	원형	40.0 이상		
				다각형	원형과 동등 이상		
				길이		제작치수±1	
	가새재	가새재	바깥지름	원형	27.0 이상		
다각형				원형과 동등 이상			
조절형인경우(겹침길이)			100 이상				
연결조인트	연결조인트	겹침길이		95 이상			
		단부에서 핀 구멍까지 간격		20 이상			

나. 등급분류기준 : 고용노동부의 「미인증·재사용 가설기자재 관리지침」

부위	항목	A급	B급	C급(폐기)
1. 공통사항	전체변형 휘어짐, 뒤틀림	없음	미세함(교정가능)	현저함(교정불가능)
	용접부의 균열 녹슬음, 부식	없음	미세함(교정가능)	현저함(교정불가능)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없음 또는 미세함	약간(교정가능)	현저함(교정불가능)
2. 발이판 및 바닥판	① 균열	없음	미세함(교정가능)	현저함(교정불가능)
	② 변형	없음	보통(교정가능)	현저함(교정불가능)
	③ 판두께	5.4mm 이상	5.4mm 이상	5.4mm 미만
3. 내관	① 구부러짐	없음 또는 미세함	보통(교정가능)	현저함(교정불가능)
	② 균열	없음	미세함(교정가능)	현저함(교정불가능)
	③ 움푹패임	없음 또는 미세함	보통(교정가능)	불량(4.0mm 이상)
	④ 핀구멍의 변형	없음 또는 미세함	미세함(교정가능)	현저함(교정불가능)
4. 외관	① 구부러짐	없음 또는 미세함	보통(교정가능)	현저함(교정불가능)
	② 균열	없음	미세함(교정가능)	현저함(교정불가능)
	③ 움푹패임	없음 또는 미세함	보통(교정가능)	불량(6.0mm 이상)
5. 지지핀	① 구부러짐	없음	보통(교정가능)	현저함(교정불가능)
	② 지름	11.0mm 이상	11.0mm 이상	11.0mm 미만
6. 조절나사(암나사)	① 나사부의 마모	없음 또는 미세함	보통(교정가능)	현저함(교정불가능)
	② 균열	없음	미세함(교정가능)	현저함(교정불가능)
	③ 핸들 및 장착부의 이상	없음	있음(교정가능)	현저함(교정불가능)
7. 조절나사(숫나사)	① 나사부의 마모	없음 또는 미세함	보통(교정가능)	현저함(교정불가능)
	② 균열	없음	미세함(교정가능)	현저함(교정불가능)
	③ 세로홈의 변형	없음	미세함(교정가능)	현저함(교정불가능)
8. 받침철물	조절형 받침철물의 기준 적용			

- ① A급 (사용가능) : 변형·손상·녹슬음 등이 거의 없거나 미세하여 즉시 또는 간단한 수리만으로 사용가능한 경우(성능검사서에서 합격 되어야만 사용가능)
- ② B급 (수리후 사용 가능) : 균열·손상·부식 등이 약간 있거나 보통으로서 수리 또는 정비를 거쳐야만 사용가능한 경우(제품보완 후 성능검사 신청 가능)
- * B급은 제품보완 후 A급으로 분류 또는 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C급으로 분류하여 폐기조치
- ③ C급 (폐기처분 대상) : 중요한 구조부분의 변형·손상·녹슬음 등이 현저하여 수리 또는 정비가 어려운 경우

○ **심사방법**

- 가. 등록신청 사업장의 자체적인 가설기자재 관리 매뉴얼을 검토
 - 등급분류기준, 폐기처리절차, 보완·수리절차, 설치·사용 기준, 구조검토기준(필요시) 등 포함여부 확인
 - 폐기처리절차에 따른 불량품 폐기처리 확인
- 나. 현장심사를 실시하는 심사원은 신청자가 선별한 A급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KOSHA GUIDE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육안심사
- 다. A급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아래 표본 수량에 대하여 외관 및 구조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형식별 신청수량(A급)	표본 수	합격제품 수
1,000개 이하	5	4
1,000개 초과~10,000개 이하	10	8
10,000개 초과~50,000개 이하	20	16
50,000개 초과	30	24

- 적치장에 선별해 놓은 경우 A급 제품에 대하여 표본을 추출하여 외관 및 구조확인 실시
- 위의 표본수량 중 80% 이상이 합격할 경우 시료 추출



4. 시료추출과 성능시험

- **현장심사 합격** : 현장에서 성능시험 대상 표본을 선정하여 운송을 확인하고 현장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 시험기관 : 가설기자재에 대한 시험기관은 한국가설협회 등 가설기자재분야에서 공인된 시험기관(KOLAS 시험기관)
 - 성능시험 수수료는 시험기관의 기준을 따름
 - * 가설협회 수수료 : 가설재 재사용 등록 시험 수수료를 준용 예정
 - 통로용 작업발판 : 190,000원 / 형식 당
 - 조립식 안전난간 : 380,000원 / 형식 당
 - 시스템비계 : 부재별 가설협회 기준에 따름 / 형식 당
- **현장심사 불합격** : 신청자가 가설기자재의 품목 등급을 재분류하여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사용 가설기자재 심사결과서와 함께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 * 신청자가 재신청하는 경우 현장심사 시 품목 등급 재분류에 따른 폐기 현황을 확인

5. 성능시험 & 판정

- **시험횟수** : 형식별로 품목별 시험항목에 정한 시험을 각 3회 실시
- **시험기준** : 작업대 및 조립식 안전난간의 성능시험에 대한 시험기준은 안전인증의 기준의 80%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
 - 시스템비계 등 기타의 가설기자재는 건설업에서 사용하는 강관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므로 안전인증 기준의 90%이상을 적용
- **품목별 시험항목** : 아래 표의 품목별 주요 시험항목을 따르며 기타 품목은 안전인증 기준에 따름

품목	시험항목	비고
작업대(통로용 작업발판)	휨강도	형식별 3회 실시
	수직처짐량	"
조립식 안전난간	안전난간기둥 휨강도	"
	안전난간기둥 수직처짐량	"
	수평난간대 강도시험	"
	수평난간대 수직처짐량	"
시스템비계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한 강도시험	"

6. 시험결과 처리

- **시험결과** : 시험기관은 품목별 시험결과를 즉시 등록처리기관(지역본부/지도원)으로 통보
 - **결과판정** :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합격기준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판정하여 등록증 교부
 - **불합격 결과처리** : 시험결과 불합격한 경우 신청자에게 심사결과서와 함께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 신청자는 불합격 등록신청 품목에 대하여 품목등급을 재분류하여 재등록 신청
- ※ 폐기 대상에 대해서는 폐기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부 지방관서에 제출
- 일부 품목만 합격한 경우 해당 합격한 품목만 등록증에 해당 품목을 기재하여 발급
 - 결과를 재사용 가설기자재 등록 접수처리대장에 기록

7. 등록처리 및 등록증 발급

□ 등록처리

- 성능시험에 조선업체의 모든 품목이 합격한 경우에 대하여 등록을 결정하고 등록증과 함께 등록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등록품목에 대한 합격표시를 하도록하고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재등록 신청토록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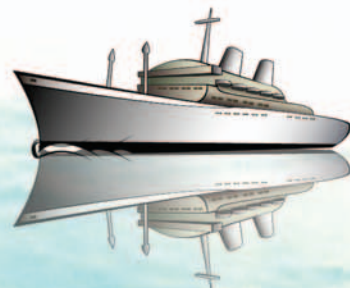
□ 합격품 표시방법

- 합격표시 : 등록 가설재와 미등록 가설재의 구분을 위하여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등록 품목에 대하여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
 - 가설재 전체를 일괄등록 할 경우 스티커 부착 면제 가능
- ※ 일괄등록 하였다 하더라도 등록가설재를 사외 협력업체에 사급하는 경우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급

8. 사후관리

- 공단에서 등록업체에 대해 정기적(6월에 1회 이상) 으로 등록업체를 방문

- 상태별 구분방법 등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 실시
- 등록업체의 신규 가설기자재 구입 및 폐기 현황을 관리
- 기술지도 안내 : 기술지도 최소 10일전에 등록업체 담당자와 일정 등을 협의
- 불시기술지도인 경우에는 제외
- 기술지도 주기 : 반기 1회 이상 기술지도
- 기술지도 내용
 - 가설기자재 보관상태
 - 등급별 구분방법 등 품질관리 상태
 - 신규 가설기자재 구입 및 폐기 현황의 관리
 -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의 적합 여부
 - 합격표시의 이행
 -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 등록 수량만큼 만 스티커를 구매하였는지 구매기록 등 확인
 - 미인증 가설기자재의 사용 여부
 - 그 밖에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등
- 기술지도 결과의 처리
 - 기술지도 결과 보완내용 등이 있을 경우 사업장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통보
 - 기술지도결과 미인증품 가설기자재를 신규로 구매,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즉시 지방관서에 그 내용을 보고
- **가설기자재 단속 강화 (고용노동부)**
 - 조선업 및 가설기자재 제조업체에 대해 매년 사용실태 및 인증품 생산여부 단속 실시
 - 특히, 가설기자재를 보유한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 실시
 - 지방관서는 미인증 가설기자재 신고 안내 및 수시감독
 - 각종 교육, 재해조사, 사업장 방문시 및 노사단체 등에 안내
 - 근로자 등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즉시 위법여부 확인(가설기자재 수시감독 실시 등) 🌟



안전한 사업장 만들면서 혜택도 받는다

「위험성평가 인정」 2013년부터 본격 시행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업종 및 규모와 상관없이 국내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지만, 사업장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활동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실시 유도 및 지원을 위해서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위해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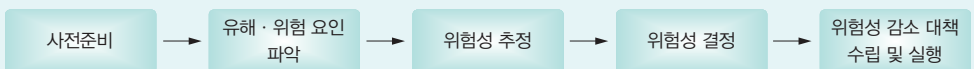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9월 26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로 제정되었다. 이 지침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절차·시기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유예 등)하는 인정제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제도에 대한 추진 절차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위험성평가 절차



2.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3.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2013년도에는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만 적용되며, 10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14년부터 적용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 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봄

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받을 시 혜택은?

①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받을 수 있다.

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용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

* 제조업은 2013년 인정사업장부터 2014년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5.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절차



△ 사업주 및 평가담당자 교육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주의 의식전환과 평가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인정신청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도의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장·지도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공단에서 현장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위험성평가를 완료해야 함

△ 현장심사 및 인정결정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심사(인정심사)를 실시하고, 인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인정유효기간은 인정이 결정된 날부터 3년이며,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인정신청서를 제출해 재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사후관리

인정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6. 위험성평가 단계별 수행방법

위험성평가의 단계별 수행방법은 월간 안전보건 8월호 또는 공단 홈페이지 자료 참고

* 공단 홈페이지 자료 다운로드 위치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산업안전 > 위험성평가 > 자료실

● 사업 추진 · 시행 일정

- ▶ 2010~2012년 3년 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 전면 시행 예정
- ▶ 2012년은 해당 지역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 고용노동부(22개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 안전보건공단(18개 지역본부 및 지도원)

● 위험성평가 운영체제

최종 (자율관리)	사업장 자율 선택	사업장 자율관리 [고용부, 공단]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단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
4단계 (교육, 컨설팅)		자율안전보건 관리 능력 지원 [공단, 민간]	자율안전보건 역량 구축단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 [조직 · 체계, 규정 등의 체계화, 자율관리 역량 배양]
3단계 (컨설팅, 인정)	위험성평가 실행 및 개선 [고용부, 공단, 민간]		위험성평가 실행 및 성과 창출단계 재정 지원 및 컨설팅 지원 등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등급 평가 후 인정]
2단계 (교육)	위험성평가관리 능력의 확보 [공단, 민간]		사업장 추진 역량 배양단계 사업장 평가자 일반, 전문교육 지원 [소규모 사업장은 공단에서 지원]
1단계 (신청)	최고 경영진의 참여의지 확보 [고용부, 공단]		사업주 인식, 실행의지 확인단계 참여사업주 워크숍 개최 및 서약 [사업주에게 실행의무 부여]

● 참여사업장 이익은?

경제적 이익

- 재해예방으로 관련 손실비용 최소화
- 재해위험에 대한 선별 투자와 단계적 투자로 예산 감소
- 안전보건 행정업무 통합 · 간소화

정부의 혜택

- 인정 사업장 감독 면제
- 보험요율제를 통해 기존 산재보험료 절감
- 면책과 과태료 완화 등으로 벌칙성 소 모 경비 경감

재해예방 · 감소에 따른 부대효과

- 노동인력 보존과 생산성 향상
- 사업장의 능동적 분위기 조성과 유대감 강화
- 기업 인지도 상승으로 부가가치 창출

● 사업 절차 · 지원사항

① 참여 신청 사업주→노동관서

- 무상교육 (실습 위주)
- 평가 매뉴얼 등 관련자료 제공

② 교육 사업주 · 평가 담당자 교육

- 워크숍 실시
- 무상교육 (실무 위주)
- 실행서약서 작성

③ 이행계획서 제출 사업장→노동관서

- 6개월 감독 면제
- 재정 지원 등 무상 지원
- 교육 · 정보자료 지원
- 예비인정

④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재정 지원

- 공동 시범평가 지원
- 컨설팅(지도)
- 관련정보 제공

⑤ 이행 수준 확인 사업장→노동관서

- 인정서 발급
- 24개월 감독 면제

⑥ 반복 시행 주기적 반복 시행

- 기술 · 교육 · 정보자료 등 사업주 요청 필요 내용 지속 지원



『위험성 평가 해외사례 (일본)』

위험성 평가는 직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유해성을 찾아내어 이것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다. 노동안전위생관리 시스템에 관한 지침에서는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의 조사 및 그 결과에 기초해 이뤄지는 조치'의 실시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2006년 4월 1일 이후 이에 대한 실시가 노동안전위생법 제28조2항에 따라 의무화되었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제28조2항에 기초해서 '위험성 또는 유해성 조사 등에 관한 지침'이 공포되었다.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

종래의 산업재해예방 대책은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유사한 재해의 재발 방지 대책을 확립하여 각 사업장에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수단과 방법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에도 잠재적인 위험성과 유해성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방치되면 언젠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술의 진전 등에 따라 각종 다양한 기계 설비와 화학물질 등이 생산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위험성 및 유해성이 다양화되었다.

이들로부터 안전보건대책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잠재적 위험성과 유해성을 찾아내고, 사전에 적합한 대책을 구성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응한 것이 사업장 자율 위험성평가이다.

위험성 그룹 분류

재해의 중대성과 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분류한 위험성 그룹과 그룹에 따른 위험성 저감조치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시)

위험성	중대성		경상	중상	중대재해
	발생가능성				
	가능성이 거의 없는 A		I	II	III
	가능성이 있는 B		I	III	IV
	가능성이 높은 C		II	III	IV
평가표	(가능성의 정의) A : 효과적인 안전조치가 있다. 특별히 주의하지 않아도 부상을 입지 않는 것 B : 안전조치를 하고 있지만 미흡하여 깜박하고 있으면 부상을 입을 수 있다. C : 안전조치가 없고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				

위험성 레벨 평가표	위험성 레벨과 내용		위험성 저감조치의 추진방법
	I	안전 보건상의 문제는 거의 없다	-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위험성 저감조치를 실시
II	안전보건 상 다소의 문제가 있다	- 위험성 저감조치를 계획적으로 실시 - 조치의 실시까지 적절하게 관리	
III	안전보건 상 문제가 있다	- 위험성 저감조치를 신속하게 실시 - 조치의 실시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IV	안전보건 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	- 위험성 저감조치를 곧장 실시 - 조치의 실시까지 작업을 중지 - 충분한 경영자원을 투입	

미국 워싱턴 건설업 산업재해 비용에 관한 보고서



미국 Public Citizen에서 10월 23일 발간한 미국 워싱턴 건설업 산업재해 비용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 주는 연방정부 근로자를 제외한 공공, 민간분야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을 감독하기 위해 자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노동산업부, 산업안전보건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산업안전보건부 감독관 117명이 232,069개 사업장을 감독(전체 사업장 중 2.4%, 워싱턴 전체 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같은 인력으로 41년이 걸림)하고 있어 사업장 감독을 위한 자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반대로 건설 재해는 생산성 감소, 의료비용, 보상비용 등 여러 경제적 손실을 불러 오고 있다. 즉 사고 1건 발생 시 피해는 단순 사고 이상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워싱턴 주는 주 차원에서 도급업체에 더 높은 안전 기준을 요구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도급업체가 주 정부 건설 입찰 기회를 얻고자 하면 사전에 인정받도록 하는 포괄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워싱턴 주가 산재 예방에 리더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건설업체 산업안전 재해 기록까지 고려하도록 주 차원에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등급 시스템을 도입해 경쟁업체들이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건설업체를 골라내고, 공공 건설 도급업체는 안전 실적을 위해 하도급업체의 안전까지 고려하게 하는 등 민간 분야 건설 업체 안전까지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출처〉

<http://www.citizen.org/documents/price-of-inaction-washington-construction-worker-safety-report.pdf>



유럽통계청

노동인구 설문조사 결과 발표



유럽의 노동인구 설문조사 결과 2011년 유럽연합 27개국의 서비스 분야 종사자(근로자와 자영업자 포함)는 전체 노동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루마니아의 경우 비율이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62%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전체 서비스업 종사자 중 무역, 교통, 금융분야 등 시장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 근로자가 전체의 39%이고, 공공행정, 교육, 보건 등의 비시장 분야 종사 근로자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제조업과 건설업에 약 25%와 농업에 약 5%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노동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종사 근로자 수는 체코(38%)와 슬로바키아(37%)의 비율이 높았으며, 룩셈부르크(13%), 네덜란드(17%)는 낮았다. 시장 서비스 종사 근로자의 경우 루마니아(26%)와 폴란드(34%)는 낮았으며, 아일랜드와 사이프러스가 45%로 높게 나타났다. 비시장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루마니아(16%)와 불가리아(22%)가 낮게 나타나고, 룩셈부르크(42%),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38%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유럽연합 27개국 근로자들의 2011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40.4시간이며, 남자의 경우 41.1시간, 여자는 39.3시간 근무를 했다.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긴 국가는 영국(42.4시간)이었으며, 덴마크(37.7시간), 아일랜드(38.4시간), 이탈리아(38.8시간)가 짧게 나타났다. 유럽연합 27개국의 전체 근로자중 계약직 근로자의 비율은 14%로 2000년 12%보다 조금 증가했다. ✿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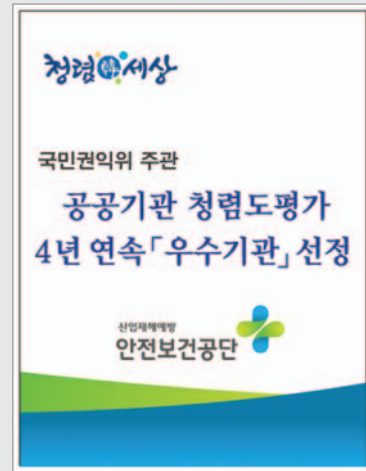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TAT-12-142_en.htm?locale=en

4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우수기관 달성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 6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24만여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이번 성과로 우리 공단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은 물론 '부정부패 사고 제로'의 성과를 동시에 달성해 청렴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견고히 다지게 됐다.

공단은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높게 나타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의 안전 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역본부

2012 교육계 지도층 안전보건 연찬회 개최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강성규)는 지난 11월 14일 공군회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교육계 지도층 안전보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학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미래의 근로자인 청소년들이 안전생활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교육계 지도층과 학교안전 및 안전보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강성규 서울지역본부장은 '학교안전과 건강'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학생 안전사고의 실태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와 건강 등을 소개하며 학교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경기서부지도원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역본부 무재해 18배 달성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도원(원장 김병진)은 지난 11월 6일 지도원 회의실에서 무재해를 달성한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역본부 등 8개 사업장에 인증패 수여와 함께 유공직원을 표창했다.

이날 무재해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18배를 달성한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역본부를 비롯해 (주)티에스엠텍 안전공장, (주)잉크테크, 대화페인트공업(주), 쌍용건설(주) 시화 MTV 2공구 조성공사, 두산건설(주) 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 남양공업(주) 1공장, 2공장 등이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역본부는 경영혁신 과제로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관리에 매진한 결과 18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일궈냈다.



전북지도원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서 수여

안전보건공단 전북지도원(원장 강신준)은 지난 11월 9일 공단 회의실에서 (주)이마트 전주점과 동우화인켴(주) 팔봉플랜트 등 4개 사업장에 대한 무재해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무재해 5배를 달성한 (주)이마트 전주점과 동우화인켴(주) 팔봉플랜트, 1배를 달성한 현대엠코(주) 전주 평화동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주)태영건설 ○○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증서와 표창장을 받았다.

201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이 발행하는 월간 「안전보건」과 「TV캠페인」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편이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을 수상했다.

지난 11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월간 「안전보건」이 '한국사보험회 회장 특별상' 을 「TV캠페인」이 '최우수 광고 및 공익캠페인상' 을 각각 수상했다. 공단은 지난 2010년에 '인쇄사보 공공부문 편집대상' 과 「TV캠페인」에 대한 '공익캠페인 부문 최고상' 을 받는데 이어 올해 두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단 관계자는 "우수한 미디어의 지속적 개발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전개로 사업장 안전보건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동부지도원 음식업 밀집지역 4무 사회 만들기 캠페인 실시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도원(원장 이덕재)은 지난 11월 13일 음식업이 밀집된 양산지하철 부근에서 외식업중앙회 양산지부 등 3개 기관과 합동으로 '음

식업 밀집지역 4무 사회 만들기 캠페인' 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음식점소를 직접 방문해 음식점종에서 많이 발생하는 넘어짐, 베임·찔림, 화상 등 재해예방을 위한 OPL 자료와 스티커를 배부했다. 경남동부지도원은 이번 캠페인에 관내 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지도원 관내 산업 재해율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지역본부 무재해 10배 인증 및 안전점검 실시



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홍경표)는 지난 11월 12일 무재해 10배를 달성한 (주)화신 봉동공장과 무재해 5배를 달성한 (주)화신 언하공장에 대해 인

증 수여식과 무재해 달성에 공이 큰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무재해 사업장인 (주)화신 봉동공장은 20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산업재해 없는 사업장을 구현해 무재해 10배 달성이라는 영예를 받게 되었다. 무재해 인증식에 앞서 진행된 작업장 안전점검에서는 공단 본부장, 사업장 대표 등이 모두 참여해 작업장 내 위험요소를 살피는 동시에 위험기계기구 작업 시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제주지도원 제주지역 안전보건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안전보건공단 제주지도원(안병준 원장)은 지난 11월 6일(화) 제주 칼호텔 그랜드볼룸 연회장에서 제주지역 안전보건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주지도원은 제주지역의 산업 재해율과 재해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 안전보건네트워크 분야별 활동내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

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등 도내 13개 산업 안전보건 기관·단체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임승업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이사는 "산업재해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행복을 앗아가고 기업과 국가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며 "이번 워크숍은 제주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제주지역의 재해감소라는 값진 결실과 안전문화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2년도 10월 유효기간 만료 및 재검정 불합격

【보호구】

· 안전모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안전모	안모 제927호-1	주성안세이브	SATTHA-7001	12-10-15
	안모 제928호-1	주성안세이브	SATTHM-7001	12-10-15

· 플라스틱보안경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플라스틱 보안경	프안 제446호-1	주오토스광학	B-809YS	12-10-24
	프안제325호-2	주오토스광학	B-803AF	12-10-30
	프안제326호-2	주오토스광학	M-641A	12-10-30

· 안전대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안전대	안대 제1533호-1	주성안세이브	SAHH(R)-E2	12-10-15
	안대 제1534호-1	주성안세이브	SABH-E2	12-10-21
	안대 제1536호-1	주성안세이브	SAU1-R1	12-10-29
	안대 제1537호-1	주성안세이브	SAU1-R2	12-10-29
	안대 제1538호-1	주성안세이브	SAU1-R3	12-10-29
	안대 제1539호-1	주성안세이브	SAU1-R4	12-10-29

· 일반보안면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일반보안면	일보 제160호-1	주오토스광학	F-72B	12-10-30

· 가족제안전화

품명	제조, 수입회사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가족제 안전화	가안 제1907호-1	한양상사	슈퍼 GENOME 460	12-10-15
	가안 제1908호-1	한양상사	슈퍼 GENOME 660	12-10-15
	가안 제1919호-1	한양상사	슈퍼-404	12-10-15
	가안 제1920호-1	한양상사	슈퍼-606	12-10-15
	가안 제1922호-1	주동우통상	LS-800H	12-10-15
	가안 제1923호-1	주동우통상	LS-820H	12-10-15
	가안 제1929호-1	한스산업(주)	HS-38알레스카	12-10-25
	가안 제1930호-1	한스산업(주)	HS-39 오리온	12-10-25
	가안 제1931호-1	한스산업(주)	HS-40 스피드	12-10-25
	가안 제1936호-1	주에이치비	HBS-500	12-10-25
	가안 제1937호-1	주에이치비	HBS-400	12-10-25
	가안 제1941호-1	한스산업(주)	HS-99 후레쉬	12-10-25

· 방음보호구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방음보호구	방음 제293호-1	한국쓰리엠(주)	1290	12-10-04
	방음 제294호-1	한국쓰리엠(주)	1291	12-10-04
	방음 제295호-1	한국쓰리엠(주)	1292	12-10-04
	방음 제296호-1	한국쓰리엠(주)	1293	12-10-04

· 방독마스크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방독마스크	방독 제373호-1	세진물산(주)	SKR-21SA	12-10-10
	방독 제374호-1	세진물산(주)	SKG-20SS	12-10-10
	방독 제375호-1	세진물산(주)	SKG-21LA	12-10-10

· 차광보안경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차광보안경	차안제270호-2	주오토스광학	B-706BS(#3)	12-10-24
	차안제271호-2	주오토스광학	B-706BS(#5)	12-10-24
	차안 제419호-1	주오토스광학	B-809BS(#1.2)	12-10-24
	차안 제420호-1	주오토스광학	B-809BS(#1.7)	12-10-24
	차안 제421호-1	주오토스광학	B-809BS(#2)	12-10-24

· 송기마스크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유효기간만료일자
송기마스크	송기 제65호-1	국제안전물산(주)	K888-1	12-10-09

【방폭기기】

· 전동기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합격유효기간
Electric Actuator	2007-1149-Q1	모건코리아(주)	TM-1i	12-10-28
	2007-1150-Q1	모건코리아(주)	TM-1i	12-10-28
삼상유도 전동기	2007-2188-Q1X	엘지엘엠에이(주)	TIKE FCKTW11X(108-35)	12-10-31
	2007-2189-Q1X	엘지엘엠에이(주)	TIKK FCKTW11X(F74-280)	12-10-31
	2007-2190-Q1X	엘지엘엠에이(주)	TIKE FCKTNWX(S355F940)	12-10-31
	2007-2191-Q1X	엘지엘엠에이(주)	TIKE FCKTW11X(118-40)	12-10-31

· 제어기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합격유효기간
HEATER LOCAL CONTROL PANEL	2007-1134-Q1	삼원계전(주)	SW-B-3101C	12-10-03
Electro-pneumatic Positioner	2007-2167-Q1	한국공장(주)	EP1000-1	12-10-04
SOOT BLOWER LOCAL CONTROL PANEL	2007-1142-Q1	삼원계전(주)	SW-STB-01	12-10-14
Isolated Barrier	2007-2175-Q1	페펠앤드폭스코리아(주)	KFD2-UT2-Ex1	12-10-15
Electropneumatic Positioner	2007-2182-Q1	삼손콘트롤즈(유)	3767-1	12-10-30
Smart Electro Pneumatic Positioner	2007-2184-Q1	한국에스엠씨공업(주)	52-IP8101-034-*M	12-10-30
Digital Positioner	2007-2185-Q1	(주)효성	520si	12-10-30
Electropneumatic Positioner	2007-2186-Q1X	이사케이(주)	6DR5**5-*E***	12-10-30

· 차단기 및 개폐기류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합격유효기간
PULL CORD SWITCH	2007-1135-Q1	(주)경원시스템	KL-PS1-EX	12-10-04
	2007-1136-Q1	(주)경원시스템	KL-PS3-EX	12-10-04
BELT ALIGNMENT SWITCH	2007-1137-Q1	(주)경원시스템	KL-BS1-EX	12-10-04
	2007-1138-Q1	(주)경원시스템	KL-BS-EX	12-10-04
LIMIT SWITCH BOX	2007-1139-Q1	(주)에치케이씨	APL-410N	12-10-11
Inductive Limit Switch	2007-2180-Q1	삼손콘트롤즈(유)(제조사 : Samson AG, 독일)	4746-2	12-10-30
차압스위치	2007-1152-Q1	코닉스계기공업(주)	KCD-31	12-10-30

· 조명기구류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합격유효기간
Inductive Proximity Sensor	2007-2164-Q1	페펠앤드폭스코리아(주)	NJ30+U1+N	12-10-04
Measuring Transformer	2007-2165-Q1	페펠앤드폭스코리아(주)	KFD0-RC-Ex1	12-10-04
Variable-area flowmeter	2007-2166-Q1	한국크로네	H250/M9-Eex	12-10-04
손전등	2007-2179-Q1	매일산업	459	12-10-15
Flood Lighting Fixture(메탈등)	2007-1143-Q1	(주)쿠퍼크라우츠하인즈 코리아	HD-HIDFL-MH400	12-10-23
Exit Lighting	2007-1154-Q1	우창전기	FUFL-LED-M	12-10-31

· 계측기류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합격유효기간
차압전송기	2007-2176-Q1	부경실업(주)	EDR-N7-XC3-M1	12-10-15
절대입력전송기	2007-2177-Q1	부경실업(주)	EDR-N7A-XC3-M1	12-10-15
압력전송기	2007-2178-Q1	부경실업(주)	EPR-N7-XC3-M1	12-10-15
Analyzer	2007-2183-Q1	한국에머슨프로세스 매니지먼트(주)	X-STREAM FD	12-10-30
가스누설감지기	2007-1151-Q1	(주)가스트론	GTD-1000Ex	12-10-30
Temperature Detector	2007-1153-Q1X	우창전기	FD-90	12-10-31

· 접속기류

품명	합격번호	제조, 수입회사	모델명	합격유효기간
Solenoid Valve	2007-2181-Q1	삼손콘트롤즈(유)	3963-1	12-10-30

* 안전인증 현황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oshri.kosha.or.kr) 안전인증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mination Info



* 안전보건공단 비전과 전략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재해예방 중심 · 전문기관

- 목표성과중심
- 협력관계중심
- 창의현장중심
- 사람참여중심

* 고객불편신고센터

TEL(국번없이) 1644-4544 FAX1644-4549

<http://www.kosha.or.kr/고객참여>

* 부정·비리 신고센터 운영

우리 공단은 고객중심의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불친절하고 권위적이거나 부정·비리에 관련된 행동을 하였을 때 아래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면 검소한 마음으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설치장소 : 안전보건공단 감사실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우편번호 403-711)
- 전 화 : (032) 5100-732~735
- 저희 공단 감사실 외에 지역본부장실 및 지도원장실도 부정·비리 신고센터입니다.

KOSHA 본부 · 산하기관

안전보건공단 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구산동34-4) 032-510-0500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구산동34-4) 032-510-0761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30 042-869-0300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구산동34-4) 032-510-0951
서울지역본부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74 (주)유한양행빌딩 14,15층 02-828-1600
서울북부지도원	서울 중구 칠패길 42(봉래동 1가) 우리빌딩 7,8층 02-3783-8300
강원지도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033-815-1004
강릉출장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15층 033-655-1860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부곡동 64-31) 051-520-0601
울산지도원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146(달동 615-8) 052-226-0510
경남지도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용호동 7-3) 055-269-0510
경남동부지도원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석산리 1440-1) 양산노동조합청사 4층 055-371-7500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19, 20층 053-609-0500
경북동부지도원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대도동 124-4번지) 054-271-2014
경북북부지도원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23(임수동) 054-478-8000
경인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서구 한빛로15(가정동 491번지) 032-570-7200
경기남부지도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층, 13층 031-259-7149
경기북부지도원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031-841-4900
경기서부지도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고잔동 729-2) 센트럴웨딩홀 2층 031-481-7599
경기동부지도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쇠골로 17번길 3(금곡동 106-2) 소곡회관 2층 031-785-3300
부천지도원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상동 538-3) 대신프라자3층 032-680-6500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282 무역회관빌딩 8, 9, 11층 062-949-8700
전북지도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간산로 251(인후동 1가 807-8) 고용노동부 종합청사 4층 063-240-8500
전남동부지도원	전남 여주시 무선중앙로 35 061-689-4900
제주지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2동 390) 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064-797-7500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문지동) 042-620-5600
충북지도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가경동) KT빌딩 3층 043-230-7111
충남지도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1418)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041-570-3400

Quiz Qu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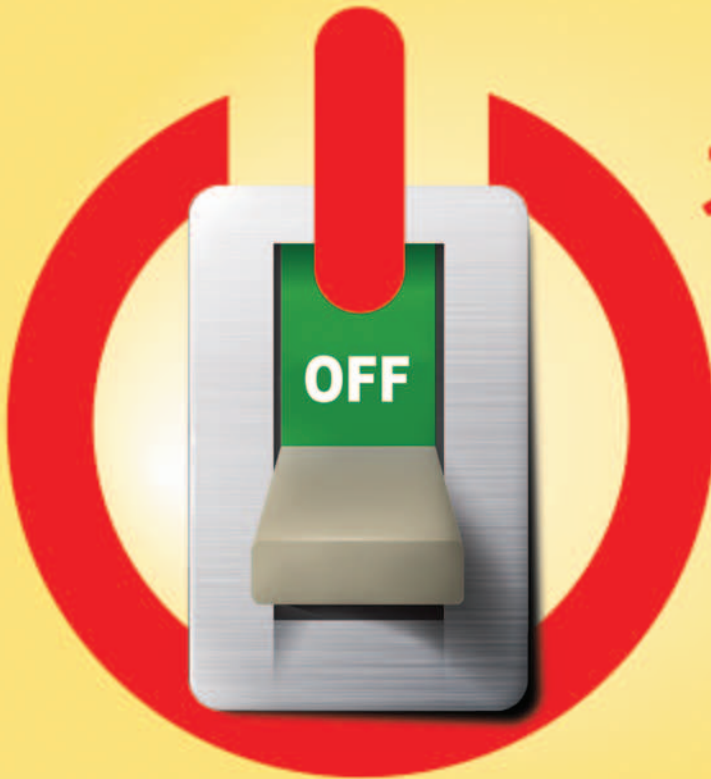
다른부분찾기









아래 사진에서 서로 다른 부분 5곳을 찾아 동봉된 (독자엽서)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때에는 주소와 연락처 이메일을 꼭 남겨주세요.



기계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차단 확인!







- 
মেশিন পরিচর্যা/ মেরামতের সময়
পাওয়ার অব নিশ্চিত করা
- 
При обслуживании / ремонте механ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Проверить отключенность питания
- 
Машин техник засварлах үед
Цахилгаанаа салгасан эсэхээ шалга!
- 
مشین کی بحالی / مرمت کرنے سے پہلے
بجلی کی سپلائی کی تصدیق کریں!
- 
යන්ත්‍රය සහ උපකරණ/දැමුණවැඩියා කටයුතුවලදී
විදුලිය විසන්ධිකර ඇත්ද යන්න පරීක්ෂාව දැනුවත්ය වේ!
- 
मेसिनरी / मेन्टिनेन्स सम्बन्धी काम गर्दा
स्वीच अफ वा ब्लक गरेको छ कि छैन चेक गर्ने

1 전원 차단 2 잠금장치 설치 3 표지판 설치



- 
পাওয়ার অব করা
- 
بجلی بند ہے
- 
Отключить питание
- 
स्वीच अफ



- 
বন্ধ করার কৌশল স্থাপন করা
- 
لاکس ڈاؤس لگاتے وقت
- 
Установить замочные устройства
- 
තුග්‍රිහ නැරඟසාල සුරුලුලාහ



- 
চিহ্নের বোর্ড স্থাপন করা
- 
اشتہاری بورڈ لگاتے وقت
- 
Установить знаки
- 
සංකේත වල කුරා රා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2011.09.30)에 따라 월간 『안전보건』 독자리스트를 새롭게 구성합니다!

월간 「안전보건」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하는 월간지로 산재예방 활동에 기여하고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월간지 발송을 계속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신청서 양식에 사업장정보를 기입하신 후 팩스(FAX 032-502-0049)로 보내주세요.

Q. 새로운 독자리스트, 무엇이 바뀌나요?

A. 구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월간지 배포목적(사업장 무재해)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 정보를 사용하게 됩니다.

Q. 구독신청 시 수집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A. 현재 월간지 발송을 위해 사용하는 독자리스트는 성명, 주소, 회사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독자리스트는 사업장명(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현장관리번호),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신청인이 속한 부서명, 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근로자 수, 업종, 건설업 공사기간 등 사업장 정보로 구성됩니다.

Q. 구독자리스트 정보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요?

A. 월간지 발송을 위한 구독자 리스트 확보 및 우편발송 서비스 대행업체 제공의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Q. 현재 「안전보건」을 잘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구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월간지 발송을 계속 희망한다는 내용에 동의하신 후 아래 신청서 양식에 사업장정보를 기입하신 후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FAX 032-502-0049)

Q. 신청 기간이 있나요?

A. 2012년 12월 31일까지 보내주세요. 2013년부터는 새롭게 구성된 독자리스트로 월간지가 발송됩니다.

Q. 개인적으로 받아볼 수는 없나요?

A. 월간 「안전보건」은 사업장 무재해를 위해 발송되는 자료입니다. 앞으로 개인 구독자는 웹 또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월간지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월간 「안전보건」의 지속적 구독을 희망하며 새로운 시스템 구축 전까지 수집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시 체크표시)

구독 신청 (), 변경 (), 해지 ()			
현재 구독 중인 사업장명, 성함, 주소			
	<small>※신규 구독의 경우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small>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small>※필수입력(건설업의 경우 현장관리번호도 기재)</small>		
회사명		부서명	
주 소			
사업장 TEL/FAX		근로자수	
업 종		공사기간	<small>※건설업</small>

겨울스포츠를 위한 스트레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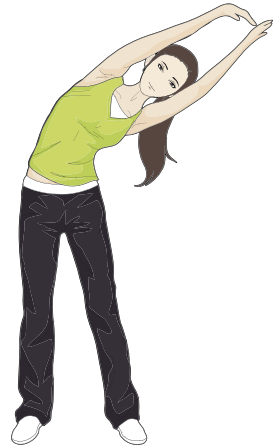


1

등 뒤로 깍지 꺼서 올리기

- ①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다.
- ② 등 뒤로 두 손을 깍지 낀다.
- ③ 허리를 세우고 천천히 깍지 낀 손을 위로 올린다.
- ④ 올린 상태에서 최대한 유지하다 천천히 아래로 내린다.
- ⑤ 반복 실시한다.

2



상체 옆으로 내리기

- ① 다리를 어깨너비로 안정적으로 벌리고 선다.
- ② 팔을 쭉 펴고 두 손을 머리 위로 깍지 낀다.
- ③ 허리를 세우고 깍지 낀 손을 유지하면서 옆으로 천천히 내린다.
- ④ 내린 상태에서 10~30초 정도를 유지한 후 제자리로 돌아온다.
- 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3

다리 뒤로 들어주기

- ① 다리를 어깨너비로 안정적으로 벌리고 선다.
- ② 중심을 잡고 허리를 세운 후 한쪽 다리를 뒤로 접어 발목을 잡아 준다.
- ③ 자세를 고정하고 10~30초 정도를 유지한 후 제자리로 돌아온다.
- ④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4



다리를 넓게 벌리고 앉기

- ① 다리를 넓게 벌리고 선다.
- ② 허리를 세우고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천천히 앉는다.
- ③ 자세를 고정하고 10~30초 정도를 유지한 후 제자리로 돌아온다.
- ④ 반대쪽으로 반복 실시한다.

나를 지키는 안전보건 에너지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앱 시리즈'

하나) 위기탈출 다국어회화



이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힘들지 않아요~~

- 직장, 일상생활 등 다양한 상황별 회화 제공
- 10개 국가 원어민이 들려주는 정확한 음성 제공
- 해외 출장시 오프라인으로 사용 가능

둘) 위기탈출 사고포착



앗! 내주변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구요?

- 전국 실시간 사고(재해) 속보 제공
- 다양한 사고(재해) 상황별 대처 방안 제공
- 사고 현장 제보 기능

셋) 위기탈출 바이ורי듬



바이ורי듬으로 안전과 건강을 지키세요.

- 나의 바이ורי듬에 따른 안전보건 포인트 제공
- 스코어보드, 위험신호 보내기 등 놀이 기능 제공

넷) 근골격계질환 예방 체조송



따라만 해도 샘솟는 건강 energy

- 걸스데이 민아양과 함께 부르는 체조송과 스트레칭 동영상 제공
- 직장인과 학생들이 따라하면 좋은 바른자세송 제공

이렇게
다운받으세요

- ▶ 안드로이드 폰 : 안드로이드 마켓 접속 → 안전보건공단 검색 → 해당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 애플 아이폰 : 애플 앱스토어 접속 → 안전보건공단 검색 → 해당 앱 다운로드 및 설치



'우편 또는 팩스' 로 지금 바로 설문엽서를 보내주세요~!

직장동료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노하우!

설문지를 여러 장 복사해서 동료와 같이 작성한 다음
한꺼번에 **팩스**로 보내세요.

당첨 확률이 쑥욱~ 올라갑니다!



질
취
선

2012. 12



은 상
고급 디지털 카메라



장려상
소정의 기념품

설문엽서를 보내주십시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설문
엽서는 더 좋은 「안전보건」을 만드
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설문엽서
를 보내주신 분께는 12월에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대상(1명) : 아이패드
(16GB, Wifi 버전)

금상(1명) : 카메라

장려상(600명) : 소정의 기념품

* 경품 내용과 추첨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독 자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 _____
주 소 : _____
전 화 : _____

-

2012. 12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전보건 미디어 만족도 측정, 경품 추첨 및 우편 발송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2. 수집·이용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직책, 회사명, 회사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 당해연도(경과 시 일괄폐기)

■ 상기 내용을 읽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시 체크표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 경품증정 등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예방
받는 사람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교육미디어실 정기간행물 담당자 앞

-

설 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 _____
주 소 : _____
전 화 : _____

-

2012. 12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전보건 미디어 만족도 측정, 경품 추첨 및 우편 발송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2. 수집·이용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직책, 회사명, 회사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 당해연도(경과 시 일괄폐기)

■ 상기 내용을 읽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시 체크표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 경품증정 등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예방
받는 사람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교육미디어실 <고객평가> 담당자 앞

-

소중한 의견으로 더 좋은 월간 「안전보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설문엽서를 보내주신 분께는 12월에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당신이 바로 아이패드2의 주인공~

독자의 소리

◎ 이번 호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던 기사와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월간 <안전보건>을 읽고 난 소감이나 의견을 알려주세요.

Quiz Quiz

다른 부분 찾기



지난호 정답



2012년 11월호 당첨자 명단

- 이상도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 어수연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 임재욱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 김재현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안전보건자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본 설문지에 기입된 내용은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설문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032-502-0049)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자료가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디자인·편집: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내용 구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반적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귀하께서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업종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건물중합관리업
- 교육서비스업
- 도·소매업
- 제조업
- 건설업
- 임업
- 음식업
- 기타산업

규모

- 5인미만
- 50 ~ 99인
- 300인 이상
- 5 ~ 49인
- 100 ~ 299인

본 자료가 여러분의 재해예방활동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귀하는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경영층 안전보건 관리자 관리 감독자 근로자 기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호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안전보건 미디어 만족도 측정, 경품 추첨 및 우편발송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2. 수집·이용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직책, 회사명, 회사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수집 당해연도 (경과 시 일괄폐기)

■ 상기 내용을 읽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시 체크표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여야 경품증정 등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

Fax 보내는 사람

이 름 : _____

주 소 : _____

전 화 : _____